

금주의 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0년 1월 18일 (토) 제 1762호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미주한인교회 3,932개, 주별 1위 CA 2위-뉴욕, 3위-뉴저지...장로교 우세 여전 침례교 뒤이어 본지 '2020년도 세계한인교회주소록' 발행

본지 부설 출판사 히스핑거가 3년 만에 2020년 세계한인교회주소록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도(11월 말) 미국내 52개 주 한인교회 수는 총 3,932개로, 본지가 3년 전 출간한 2017년 세계한인교회주소록에 비해 약간의 감소세(2016년말 4,018개)를 보였다.

또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78개국의 한인교회는 1,456개로 나타났다.

본지가 발행한 '세계한인교회주소록'에 따르면 2019년 11월 현재 미국내 한인교회 중 주별 1위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가 1위로 1,127교회(1,162), 2위 뉴욕 396교회(420), 3위 뉴저지 233교회(259), 4위 버지니아 224교회(198), 5위 텍사스 207교회(195)로 1위부터 5위까지는 3년 전과 동일한 순위를 기록했다(괄호 안은 2016년 말 교회 수).

그러나 주별 교회 수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는 감소한 반면 버지니아와 텍사스는 증가했다.

6위는 일리노이 주로 175교회(172), 7위는 조지아 172교회(193), 8위는 메릴랜드 155교회(147), 9위 위싱턴 주 145교회(189), 10위 펜실베이니아 107교회(113)로 나타났다(괄호 안은 2016년 말 교회 수).

조지아 주는 3년 전에 비

해 20여 교회가 줄어 6순위에서 7순위로 밀렸으며, 워싱턴 주도 40여 교회가 줄어 9위로 밀려났다. 다만 일리노이 주는 3년 전과 거의 동일해 8위에서 6위로 뛰었다.

한편 100개 이상의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주는 3년 전과 동일하게 10개 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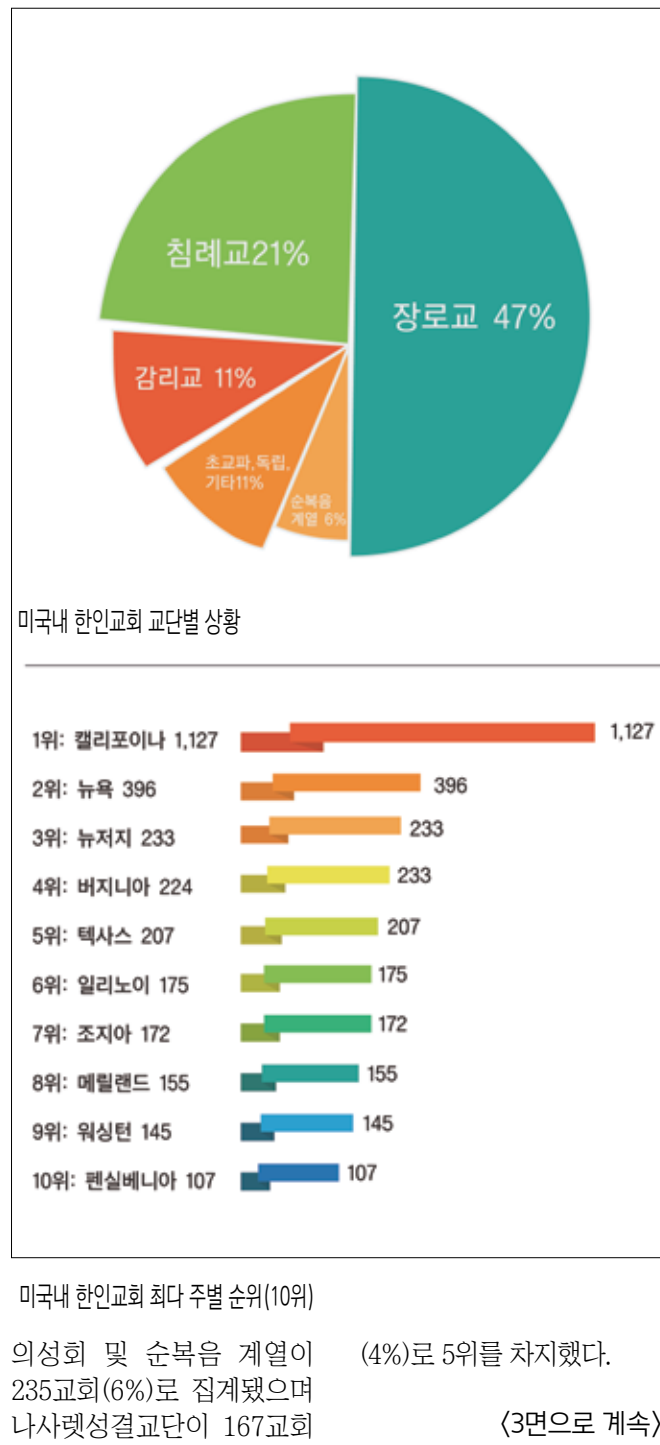
미주와 한국을 제외한 해외한인교회는 78개국에 총 1,456교회가 리스팅됐다. 3년전과 비교해 200여 교회 이상이 증가했다.

해외교회 1위는 3년 전과 동일하게 캐나다로 400교회(392), 2위는 일본 193교회(199), 3위 호주 180교회(172), 4위 독일 100교회(98), 5위 뉴질랜드 74교회(35)로, 3년 전에 비해 뉴질랜드는 큰 증가세를 보였다.

아마도 한국인들의 뉴질랜드 이주 및 유학이 늘어난 결과로 추측된다.

6위는 영국 65교회(54), 7위 브라질 62교회(45), 8위 아르헨티나 42교회(55), 9위 멕시코 25교회(20), 10위 파라과이 20교회(21)로 집계됐다. 이로써 3년 전에 비해 약간의 증감세와 이에 따른 순위 변동을 보였다.

미국내 교파별 상황을 보면 장로교(개혁신교 포함)가 1,857교회로 약 47%를 차지했으며 21%를 차지한 침례교(850)가 2위, 3위는 감리교 432교회(11%), 4위는 하나



UMC 분리통한 구조 재조정 들어가 송감독회, 성정체성 견해차로 인한 교단분리 의정서 서명

전 세계 연합감리교회의 다양한 그룹들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비공식 단체인 중재 팀이 연합감리교회를 분리하자는 의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전원 서명했다. 결별을 통한 화해와 은혜의 의정서(the Protocol of Reconciliation & Grace Through Separation)라는 이름의 이 문서는 지난해 12월 17일 작성됐고, 2020년 1월 3일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는 지난 2019년 특별총회에서 성정체성에 관한 견해를 좁히지 못한 채, 교단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교인 수가 1,300만 명이 넘는 연합감리교회의 분리에 관한 절차를 상세히 밝힌 9페이지짜리 의정서를 뒷받침할 임법안은 2020년 5월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총회 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17명으로 구성된 이 중재 팀은 해외지역총회 감독들이 주관한 협의 과정의 결과다. 이 논의에 참여한 각 그룹의 대표자들은 중재 및 분쟁 해결 대안 전문 변호사인 케네스 파인버그의 도움을 받았다.

9·11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기금 문제를 다룬 책임자이자, 여러 복잡한 문제를 다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인 파인버그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 일을 무료로 도왔다.

몇 달에 걸친 회의 끝에 중재 팀은 총회에서 논의될 교단분리에 관한 여러 플랜의 차이를 중재하고, 성숙하게 교단분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

(3면으로 계속)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213)388-1000 | 500 Shatto Pl., Los Angeles

성경말씀, 성경대디,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치유를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gbok.com / cbj@lgbok.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역 상담, 동성동역기, 생가독집 주문 제작, 타월, 선불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330-8080 | blb@estoro.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제 5 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

The Missional Church Seminar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목회현장의 경험과 함께 듣고 나누는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March 16th-18th 2020.
 장소 | 유니온 신학교 (Union Presbyterian Seminary, Richmond, VA)
 일시 | 2020년 3월 16일(월) 오후 4시-18일(수) 오후 1시
 등록비 | \$100(Pay to UPS)
 우편 등록 | Dr. James Taneti (804-278-4350) (Director, Global Mission Center, Union Presbyterian Seminary, 3401 Brook Rd. Richmond, VA 23227)
 문의 | 804-980-0645(배현찬) 903-743-8956(김동영)
 이메일 등록 | James.taneti@upsem.edu

강사 | 배현찬 목사 (선교적 교회 목회론) (리더십은 이렇게) (양육은 이렇게) 저자 주예수교회 담임 목사
 사례 발표 | 김동영 목사 한국 음식 문화 축제 컬럼비아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

내용 | 강의, 나눔, 사례발표, 도서관 순례, 총장 초청 만찬

공동 주최 | 국제 선교 센터 & 사회 선교 연구원 (Co-sponsor) (Global Mission Center, Union Presbyterian Seminary) (Social Mission Center, Lord Jesus Korean Church)

● 발행인 칼럼 ●

모세 엄마 이름은 뭐예요?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모세 엄마 이름은 뭐예요?” 네 살짜리 손녀의 질문이다. “요게벳” 할머니의 대답이다. 그때 나선 여섯 살짜리 손녀가 동생에게 이렇게 말한다. “다 몰라도 하나님만 알면 돼” 연초에 제직수련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들려주신 목사님 손녀들의 이야기였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알아야 할 것도 많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일까? 여섯 살 아이가 말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을 아는가? 신학교에서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더 잘 아는가? 물론 교회 오래 다녔고 신학교에서 공부함이 하나님을 아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교회에서 들을 때와 신학교에서 배웠을 때의 하나님이 삶에서 체험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실체가 되고 더 깊어진다. 아주 오래전 신년 첫 예배 때 받은 말씀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었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었다. 그 예배 후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하이웨이 저 앞에서 차랑들이 부딪히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급 당황 가운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나도 그 아수라장에 참여(?)하기 바로 직전 내 차가 멈추었다. 불과 2-30cm 앞이었던 것 같다. 지키시는 하나님을 도로 위에서 생생히 알게 되었다.

“모세 엄마 이름은 뭐예요?” 네 살짜리 아이의 질문치곤 대단하지 않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들을 아는 것도 포함되리라. 3개월 된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 나일 강에 띄어 보낸 요게벳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였다. 작년 카작스탄 단기선교 때에 우리 선교팀 중의 한 여 집사님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수화위임을 공연했다. 그 내용 가운데 모세를 향한 요게벳의 노래가 있었다. “너의 삶에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요게벳이 말한 아이를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는가. 그 이아를 물가에서 건지시어 각양 훈련을 시킨 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셨다. 모세 엄마 요게벳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모세 엄마 이름은 뭐예요?” 네 살짜리 여자아이가 아직 엄마들의 이름을 알리가 없을 텐데 그렇게 물었다. 많은 엄마들이 자기 이름을 잊고 산다. 사람들이 “누구 엄마”라고 아이 이름을 물어서 부르기 때문이다. 자기의 이름을 찾기보다 자녀들을 위해 희생을 삶을 묵묵히 살아온 여성들의 이름이 어머니이다. 자기들의 꿈을 내려놓고 자녀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는 사람들이 어머니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엄마”라고 하지만 그 엄마의 이름을 찾는 것도 소중하다. 김춘수 시인의 “꽃”을 들어 보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모세 엄마 이름은 뭐예요?” 엄마 이름을 불러보자. “어머, 그게 내 이름이었어?” 놀라실 것이다. 그동안 숨겨졌던 엄마의 빛깔을 볼 것이고 감춰졌던 엄마의 향기를 맡게 될 것이다. 내친 김에 아내의 이름도 따듯이 불러보자. 눈시울이 붉어진 아내가 꽃이 되어 다가와 살포시 품에 안기지 않겠는가.

“종교는 국가와 국가이념 증진위해 존재”

Bitterwinter.org, 2020년 2월부터 중국 신종교법안 종교단체관리법 발효 보도

중국내 종교탄압, 특히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규제 면에서 일변도인 2017년 신종교사무조례의 뒤를 이어 2020년 2월 1일부터 신종교법안 종교단체관리법이 발효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모든 종교에게 “중국 공산주의 이론을 전파”할 것을 명하고 있다(China's New Measures for Religious Groups 2019: From Bad to Worse The new provisions will be in force from February 1, 2020. They reinforce the already restrictive regulation of 2017 and order all religions to “spread the principles of the CCP”).

2017년에 입안된 신종교 사무조례가 발효된 것은 2018년 2월 1일이었다. 이는 종교에 대한 시진핑의 새로운 정책이 법안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문화혁명 이후 규제의 정도가 가장 심했다.

사실 전능하신하나님교회(단일 종 단체로는 중국에서 가장 심한 박해를 받는 단체)나 파룬궁처럼 이미 사교로 분류돼 금지되고 박해받는, 이른바 블랙마켓에 해당하는 종교단체를 탄압하기 위해서는 새 법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들을 억압하는 조직적인 탄압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학자는 2017년 종교규제 법안의 목적이 그 레이아웃에 속하는 종교단체들을 점차 박멸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레이마켓 범주는 사교로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았으나 정부의 승인과 통제를 받는 5대 허가 종교단체, 즉 레드마켓에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종교단체들을 일컫는다.

그레이마켓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개신교 가정교회다. 그렇게 2018년 발효된 규제 법안은 이들을 친(親) 정부파인 삼자교회, 즉 레드마켓에 가입하게 만들려고 했으며 거절할 경우, 예배소를 파괴하고 목회자들은 체포하겠다는 협박이 뒤따랐다.

그리고 2019년 12월 30일, 중국 가정교회 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인 청두(成都)시 추우성약교회(秋雨聖約教會)의 왕이(王怡) 목사에게 9년 형이 선고됐다. 아마 같은 날인 12월 30일에 2020년 2월 1일 발효 예정인 종교단체관리법을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이 승인한 것은 전적으로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2017년 종교사무조례가 시행 후 2년이 흘렀으니 시진핑의 종교 정책에 대한 보도처럼 휘두를 수

있는 새로운 법적 무기가 작될 것이다.

중공은 6장 41조로 이뤄진 종교단체관리법에 대해 ‘종교단체의 조직, 기능, 감독, 그리고 관리’ 전반에 대한 새롭고도 포괄적인 법안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아시아뉴스(AsiaNews)를 비롯한 일부 매체는 해당 법안이 중

로 종교단체의 설립 등기와 변경, 말소 및 관련 단체 정관의 승인 전 업무 심사, 종교단체의 연례 사 보고 검토를 담당하며 등기 말소된 종교단체의 청산 사무를 지도한다.

(2)종교단체가 법과 조례에 저촉되지 않게 활동과 역할을 하도록 감독 및 지도하

념적, 구조적, 품격적, 그리고 제도적 측면을 강화한다.

(5)지도와 관리가 필요한 기타 내용은 법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6조와 27조는 종교단체가 실행 전에 당국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들의 목록인데 종교단체 간부의 임명, 회의 개최, ‘단체 내부 모순과 분쟁’ 해결 등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나열돼 있다. 34조는 재무 상태 및 수익과 지출에 관한 사항들을 다룬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종교단체는 모든 주요 활동을 중국 해당 당국에 사전



모든 종교에 중국공산주의 이론 전파명령 최악의 상황...개인의 종교 자유에 치명타

교 자유에 대한 치명타가 될 것이라 비판했다.

이번 법안이 2017년 법안보다 강화된 것은 모든 종교단체가 의무적으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중공 관료에게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지 종교 사무 관련 부서들은 모든 종교단체에 대한 ‘행정기관’이 돼 ‘지도와 감독 관리’를 통해 그들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게 될 것이다.

특히 25조에 따르면 ‘인민 정부의 종교 사무 관련 부서는 주무 사업 단위로서 국내 관제법과 조례,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다음 사업들을 지도 및 관리한다:

- (1)관계 당국과 합동으

며, 종교단체가 법, 조례, 규정, 정책, 단체 정관을 위반했을 시 법에 따라 처리한다.

(3)종교단체가 인민정부의 종교 사무 관련부서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한 내역을 법에 따라 인허가 및 감독, 관리한다.

(4)종교단체의 규정 및 규칙의 제정과 개선이 헌법, 법률, 조례, 규정, 그리고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지, 업무상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등을 지도, 감독하고 그 내용의 이

신고하고 승인이 나야만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새 법안에 ‘인민정부 종교 사무관련 부서의 승인이나 행정관련 부서의 허가 없이는 종교단체의 이름으로 어떠한 활동도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듯, 이번 조례가 발효되면 가정교회, 반체제 가톨릭단체, 여타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 등 이른바 그레이마켓의 활동에는 치명적이 될 전망이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213)674-7982 (대표) (323)665-0009(광고)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대표) (718)886-4424(한국)
Fax: (718)886-0074(대표)
E-mail: nyk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0, July 6, and Nov 30,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www.rptseast.org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본 신학교는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 (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 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 전

- 1) 국내의 저명한 교수진 확보
- 2) 성적 우수 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특히 목회와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 후 장학금 지급)
- 3)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4)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5) 졸업생은 원할 경우에 2년 인턴과정 후, 심사를 거쳐 개혁교회 지원할 수 있음
- 6)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20 성경의 땅 배움여행

성경의 땅 이스라엘로 2020년 11월 19일(목)~28일(토) 8박 9일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 대상: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신학생, 동문회, 신학교에 관심이 있는 분
- 경비: \$2,700 (모든 경비 포함) - 마감: 2020년 7월 31일 까지
- 신청: 학감 허윤준 박사 (718-637-1470) / 사무실 (718-463-7163)

2020학년도 봄학기 입학안내(주·야간)

| | | | |
|-----|------|----|------------|
| 대학부 | 신학과 |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 | 선교학과 |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 | | | |
|-----|----------|----|------------|
| 대학원 | 목회학석사 |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 | 기독교교육학석사 |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 | 선교학석사 |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 | *여교역학 | 3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부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1부
4. 신앙고백서 1부
5. 명함판 사진 2매
6. 입학전형료(\$30)

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접수마감 : 2020년 1월 24(금) 오후 6시
원서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입학시험 : 2020년 1월 25(토) 오전 11시, 면접 오후 2시
개강부흥회 : 2020년 1월 27(일) - 1월 29(일)수
문의처 : Admission Office / 학감, 교무
143-17 Flanklin Ave. Flushing, NY 11355
학감: 718-637-1470 / 교무: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본지 '2020년도 세계한인교회주소록' 발행

(1면에서 계속)
이외에 구세군, 루터교, 복음주의 계열 등이 있으며 초교파와 독립교단, 무소속도 228교회나 됐다. 장로교 중 미주내 가장 큰 교단은 예년과 동일하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가 537교회로 나타났으며 2위는 역시 한인교단인 해외한인장로회

(KPCA)가 480교회, 3위는 미국교단인 PCUSA가 차지했다(305). 4위는 미국교단인 PCA(156)로 기록됐다. 이외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고신, 백석대신, 통합, 개혁 등)도 322교회로 집계됐다. 또 장로교 계열의 개혁주의 교단인 CRC와 RCA도 84

교회와 33교회로 각각 집계됐다. 또 선교회 교단인 C&MA도 58교회로 나타났다. '2020 세계한인주소록'에는 이외에 기독교기관, 기독교 언론, 선교회, 신학교 그리고 기도원 및 수양관 등의 리스트와 함께 교회 웹사이트 주소도 첨부했다. 이번 주소록에는 총 5,666개의 리스트가 수록됐다.

'2020 세계한인교회주소록'은 1월 중순부터 미국 전역에 배포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배포되고 있다. 주소록을 메일로 받기 원하면 우송료(10달러)를 LA 사무실(611 S. Catalina St. LA, CA 90005)로 보내면 된다. (유원정 기자)

UMC 분리통한 구조 재조정 들어가

(1면에서 계속)
“우리 서명자들은 모든 사람에 대한 존엄과 평등 및 고결함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 교회의 모든 지체가 각자의 신학적 입장을 진실하게 유지하도록 허용하며, 각자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연합감리교회를 분리하고 구조를 재조정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의정서 전문에 밝혔다.

이 문서에 서명한 중재 팀에는 차세대연합감리교회(UMCNext), 주류연합감리교회(Mainstream UMC), 고백운동(Confession Movement), 굿뉴스(Good News), 종교및민주주의 연구소(The Institute on Religion & Democracy), 웨슬리언약협회(Wesleyan Covenant Association), 행동을 위한 감리교 연맹(Methodist Federation for Social Action), 화해사역네트워크(Reconciling Ministries Network), Affirmation, 연합감리교성소수목회자코커스(United Methodist Queer Clergy Caucus) 등의 대표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 필리핀 등의 해외지역 감독들도 포함돼 있다. 서명자들은 이 제안을 지지하고 실행하기 위한 법안을 만드는 데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 의정서는 새로운 전통주의 감리교의 출현을 예상한다. 새 교단이 설립되면 향후 4년에 걸쳐 2,500만 달러를 받고, 기존 연합감리교회로부터 분리되는 잠재적인 새로운 감리교회를 위해



서도 200만 달러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소수 인종을 향한 구조적 폭력과 착취 및 차별에 저항하는 감리교의 역사적 역할을 인정하면서, 인종주의에 의해 역사적으로 소외

된 지역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역이 중단 없이 실행되도록 3,900만 달러를 할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 연합감리교회의 자산에 대한 추가 청구는 포기해야 한다. 의정서에 따라 각 연회와 각 교회 회중은 주어진 기간 안에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고 새로이 형성되는 감리

교회를 분리 후 특별총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2020년 총회 직후 소집될 이 특별총회의 목표는 지역별 총회를 만들고, 전통주의 플랜과 성소수자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제거하는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이다.

이 중재 팀을 대표해서 시에라리온의 존 암바수(John Yambasu)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교회의 종이며,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한 결정권자가 아님을 인정한다. 대신, 우리는 2020년 총회 대의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더욱더 효과적이고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를 소망하며, 이 안전을 겸손히 제안한다.”

이 의정서의 서명자들은 이 문서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링크를 만들었다.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면mediated_protocol@gmail.com으로 직접 문의할 수 있다. 교단을 떠나기로 한 교회도 현 자산과 부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모

든 목회자와 평신도 직원의 연금 프로그램은 교단의 변경과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뿐만 아니라, 장정의 성소수자 또는 동성결혼에 관련한 모든 행정적, 사법적 절차와 교회 폐쇄조치는 분리가 완료될 때까지 중단된다.

이 의정서는 또한 연합감리교회 분리 후 특별총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2020년 총회 직후 소집될 이 특별총회의 목표는 지역별 총회를 만들고, 전통주의 플랜과 성소수자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제거하는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이다.

이 중재 팀을 대표해서 시에라리온의 존 암바수(John Yambasu)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교회의 종이며,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한 결정권자가 아님을 인정한다. 대신, 우리는 2020년 총회 대의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더욱더 효과적이고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를 소망하며, 이 안전을 겸손히 제안한다.”

이 의정서의 서명자들은 이 문서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링크를 만들었다.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면mediated_protocol@gmail.com으로 직접 문의할 수 있다. 교단을 떠나기로 한 교회도 현 자산과 부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모



더 겸손해져야 하는 인간의 자리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남가주에서도 가끔 대형 산불을 경험한다. 수년 전 LA북쪽 Tujunga 지역에 살 때 직접 경험한 산불은 그야말로 ‘무서웠다.’ 그리고 산불이 거의 진화한 후 한 달 여 가까이 아침마다 눈내린 듯 지붕과 주차한 차 위에 날아와 덮이는 불먼지는 호흡을 위협할 정도였다. 가까이서 산불을 경험하면서 자연재해가 얼마나 인간에게 ‘두려움’인지를 체험하면서 무력한 인간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호주 산불이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 바뀌는 천변지이(天變地異)의 재앙을 보여주고 있다. 엄청난 규모의 연기가 보여주듯 화재 피해는 막대하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인공위성이 촬영한 호주 남동부지역의 사진에 해안선 구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한 화재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할 정도이다. 네 달여 동안의 피해상황을 보면 6천만ha, 한반도 면적의 60%정도가 화재에 휩싸여있고, 수십 명의 사망자와 수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죽어가고 있다. 며칠 전 잠깐 비가 내리던 날 뉴스화면이 보여준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소방대원의 얼굴, 그러나, 그것도 잠시 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도 이제 불길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총력을 다해 복구작업을 펼치고 얼마큼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사람들에게 세계보건기구는 우울한 메시지를 던졌다.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는 이 엄청난 재해로 인한 직접적 피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의 기상변화라고 지적했다. 그것은 바로 지구 대기권으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 문제의 심각성이다. 지난 주말 과학전문기자가 정리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호주 산불로 방출된 이산화탄소는 지금까지 3억5천만 톤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지난 번 아마존 산불보다 2.5배 많은 수치로, 호주에서 평소 방출되는 한 해 동안의 이산화탄소가 평균 3억4천만 톤이었는데 불과 네 달만에 한 해 배출량을 뛰어넘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영국의 데일리메일이 호주 과학자단체인 ‘세계탄소계획’의 입장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산림이 탄소 흡수 역할을 다시 하려면 적어도 100년은 걸린다고 보도했는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인류에게 그럴만한 여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점이 었다.

심각하게 우려되는 문제는 바로 전 지구상에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문제이다. 이 기후의 변화는 우리도 체감하고 있다. 점차 우리는 덥지 않은 여름, 춥지 않은 겨울을 경험하기도 하고, 무서울 정도의 폭우나 폭설, 때론 생명을 앗아가는 폭염 등 자연 재해는 다음 세대 인류에게 가장 큰 적(敵)이 되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게 되었다.

무서운 일들은 인류 초기부터 있어왔다. 빙하기를 말하고, 성경의 홍수 사건을 읽을 때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일차적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었던가. 인간끼리의 싸움(국가간 전쟁을 비롯해 정치권의 싸움과 부부싸움에 이르기까지)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쪽으로든 방향이 잡히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왔다. 그런데, 기후변화는 어느 쪽으로든 방향이 정해지고 새로운 또 한 페이지의 역사가 쓰여지는 문제가 아니라 공멸(共滅)의 문제다. 다 망하는 일, 그야말로 지구의 멸망이라는 ‘끝(THE END)’인 것이다.

사람에게 대들어서 생기는 것이 싸움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대든 인류의 교만이 얻게 되는 것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자연재해이다. 산과 나무를 잘 가꾸었나 아니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의 악이 인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다.

산불은 저주가 아니라 교훈이다. 호주의 산불이 잠잠해지고 세계 곳곳의 전쟁의 기운들이 겸손해지기를 바란다. 산불 앞에서 인간의 무력(無力)을 배운다.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인간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앞에 겸손히 엎드린다. 그리고 긍휼을 구하며 기도한다.

“종교는 국가와 국이념 ...”

(2면에서 계속)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종교단체가 종교가 아니라 종교공과 종교의 이념 증진을 위해 존재한다고 아예 대놓고 말하는 17조다. 내용을 보자. ‘종교단체는 종교 성직자와 신자에게 국가 법률, 조례,

규정뿐 아니라 종교의 방침과 정책을 전파하고 종교의 영도와 사회주의 체제를 받들며 중국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법과 조례, 규정과 정책을 준수하며 국법과 종교법 간 관계를 올바르게 조율하고 국가·법치·시민 의식을 함양하도록 교육 및 지도한다.’ 또한 32조는 ‘종교단체는

종교 지식뿐 아니라 종교공과 종교의 국책, 조례, 그리고 우수한 중국 전통문화의 주요 의사 결정 제도로부터 종교 종사자들이 배울 수 있는 학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돼있다. 여기서 ‘우수한 중국 전통문화’라 함은 시진핑과 종교가 해석하는 대로의 중국문화다. 2020년 2월 1일부터 2017

년 신종교법안이 어떻게 다르게 실시될 지는 그 시행을 지켜봐야만 알 수 있다. 하지만 종교탄압이 계속되고 있고 법체계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알림] 본지 1월 11일자는 정기휴간에 따라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HERCULES INVESTMENTS 헤지펀드 투자전략

한국어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헤지펀드사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어로 헤지펀드 투자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앞으로 있을 시장조정, 또는 크래시에 대비하시고 계신가요?
부동산 말고도 폭락하는 시장에서도 더 큰 수익을 올리시고 싶으신가요?
지난 24년동안 축적한 헤지펀드 투자전략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산도 지키시고 내려가는 시장에서도 수익을 올리실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알아가세요.

JANUARY 18TH, SATURDAY 1:00 PM

HOSTED BY HERCULES INVESTMENTS

LOCATON: REGUS-LADERA CORPORATE TERRACE
999 CORPORATE DRIVE #100 LADERA RANCH, CA 92694



HERCULES INVESTMENTS



RSVP: (714)469-3553
김윤희 부사장

(자리가 부족할수도 있으니 미리 예약 부탁드립니다)

www.hercules-investments.com

HERCULES HEDGE FUND WEALTH MANAGEMENT INSTITUTIONAL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가정예배를 회복하라!

이 타이틀은 2020년 새해 첫 주일설교 제목이었다. 금년 우리 교회 모토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로 정했다. 우선 가정들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한 법이다.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가정은 힘들고 어둡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교회론을 잘못 가르친 결과이고, 가정은 부모한테 교회가 빈약하면 이것도 역시 가정교육을

잘 못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모두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저들에게 에덴을 맡기셨다. 이 부부들에게는 곧이 집(house)이 따로 필요치 않았다. 아열대 기후에 더위도 추위도 없었고 맹수도 없고 적들도 없었다. 사방이 평온하고 안전했기에 부부들이 아무데

나 누우면 곧 그 곳이 침실이었고 가정(home)이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worth ship). 이 에덴의 가정교회는 아담은 목사였고 하와는 돕는 배필(helper-조사)이었다. 에덴 가정교회 목사 아담의 메시지는 언제나 생명의 나무를 열심히 먹으라!(Do it)와 선악과는 먹지 말라!(Don't do that)였다. 이 가정교회의 교인들은 바로 저들의 자녀들이었다. 가인과 아벨이 성장한 후에 각각 제사를 드린 기록을 보면 이 아들들은 당연히 부모에게서 예배를 배웠을 것이 확실하다. 부모에게 예배를 배우지 않았다면 저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는가? 문제는 가정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만연한 죄가 부모나 자식들을 모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결국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무너진 가정교회를 회복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머리되시는 예수님의 지체들이 되어 가족보다 더 밀접한 한 몸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것

이 오늘 한 가족이 되어 한 교회를 신약교회의 정이다. 따라서 오늘날 여전히 가정과 교회를 이중 기관으로 오해하고 격리하는 것은 신약 교회관의 큰 오류이고 구원의 질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신약시대의 최초의 교회들을 보라! 모든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되지 않았는가? 루디의 가정에서 빌리보교회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방인의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는가? 우리네 이민교회의 출발을 생각해 보라! 대부분 교회의 출발은 한두 가정들이 집에서 모여서 시작하여 오늘의 교회를 이루지 않았는가? 처음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라! 돈을 아끼지 않았고 서로 대접하는 것이 기쁨이었고 보람이었다. 이 좋은 소문이 이웃들에게 퍼지면서 점점 더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오늘의 교회당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점은 대부분의 가정들이 오늘날은 주일날 교회당 예배 한 번으로 가정예배를 대체하는데 있다. 소수의 부부들은

새벽기도로 대체한다고 하지만 99%의 가족들은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한 주간의 삶을 보내고 있다. 특히 교회의 중직자들도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일주일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문제점이 크다고 본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시간은 사탄이 그 시간을 정복한다고 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란다면 가정에서 가족들의 공동예배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제부터 모든 가정들이 가정예배를 시작하는 길이 가정이 살고 나라가 바로 서는 길이다. 1000년의 로마의 멸망도 결국은 가정이 무너짐으로 출발했다고 한다. 이 미국의 정교도들은 아침저녁으로 가정예배를 드렸다. 지금도 개혁교회의 출발지였던 네덜란드는 주일학교 제도가 없다고 한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철저하게 부모의 몫이다. 이제 모든 가정들이 즉시 가정예배를 시작하자! 이 가정예배가 가족들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세계적인 거부인 록펠러와 강철왕 카네기도 어려서부터

가정예배를 통해서 삶을 배웠다. 링컨도 비록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지만 생전에 그 어머니에게서 가정예배를 배웠고, 신앙심이 깊은 계모에게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인생을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이제부터 가정예배를 시작해야 한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한 혈통을 나눈 형제자매라도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한 가족이 될 수 없다. 어찌 육신의 가족과 영적인 가족이 한 가족이 될 수 있는가? 가정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청경을 이룰 수 있고 사탄이 가정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한다. 모든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행복해지면 행복한 교회는 저절로 서갈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가정예배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jkim47@gmail.com

푸/른/초/장

이성권 목사
(신티내티 능력침례교회)



이민생활을 광야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더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이제 광야가 앞에 있는 인생길을 걷기보다 광야가 뒤에 있는 초원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는 사도들을 체포, 구금, 심문, 추방, 사형까지 하려는 악행들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 대적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동입니다. 왜 이런 핍박이 있습니까? 영적인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 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공격, 게임 음악 영화 컴퓨터를 통한 공격 등 다양합니다. 이 땅의 문제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무장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교회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클레시아!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약해지

기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한 마 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행4:24).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행4:29-30). 오늘날 각 교회마다 기도하는 분들과 기도소리가 줄어들지는 않았는지요? 부흥하는 교회는 먼저 기도가 살아 있는 교회입니다. 당신이 약해짐으로 당신의 교회가 약해지고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강해질 때 당신의 교회도 더 강

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12) 선포했습니다. 공회에서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경고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도 말라"(17)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 할 수 없다"(19-20)며 그들이 받은 사명 따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교회는 그 시대를 책임지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려면 충만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이 악으로 더 충만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 꺼진 난로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거스리고 있는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으로 거스리는(행4:27) 영성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단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루살렘교회 교인들은 함께 기도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놓이매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23-24)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31)고 했습니다. 즉,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병든 세상을 고치는 도구로 담대히 쓰임 받는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미국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로 쓰임 받은 찰스 피니(Charles Finney, 1792-1875) 목사님은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는 말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이 시대는 충만보다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인 자녀들 세대는 더 더 충만해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영적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시대적인 사명을 위해서 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파워미션! leesungkwon@gmail.com

“더 성령충만이 필요한 시대”

사도행전 4장 31절

첫째는, 복음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음은 초대교회 때부터 언제나 위협받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은 언제나 확장되어 지경을 넓혀 왔습니다. 행8:1-3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말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싫어하여 복음을 전

면 교회공동체는 약해집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테네시 주에 있는 스모키마운틴(Smoky Mountain)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푸른 숲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숲길을 운전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나무 시체들이 쓰러져 누워있거나 곧 넘어지기 직전에 기울어진 나무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치 교회의 상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금 미국은 초교파적으로 1년에 6000-1만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매주 100-2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Replant(교회 재계적 운동)과 Revitalization(재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교회가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계3:16)가 되면 안 됩니다.

셋째, 시대적인 교회의 사명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사람들에 살 아게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느껴지게 했습니다(행2:43)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행2:47) 칭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이며, 주님께 속한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니까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남자만 5000명(행4:4)이나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60%의 교회에 어린이 교회학교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고령화, 노령화, 인구절벽으로 교회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민자, 유학생 감소까지 겹쳐서 동일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

기 중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행4:24).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행4:29-30). 오늘날 각 교회마다 기도하는 분들과 기도소리가 줄어들지는 않았는지요? 부흥하는 교회는 먼저 기도가 살아 있는 교회입니다. 당신이 약해짐으로 당신의 교회가 약해지고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강해질 때 당신의 교회도 더 강

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12) 선포했습니다. 공회에서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경고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도 말라"(17)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 할 수 없다"(19-20)며 그들이 받은 사명 따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교회는 그 시대를 책임지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려면 충만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이 악으로 더 충만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 꺼진 난로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거스리고 있는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으로 거스리는(행4:27) 영성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단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루살렘교회 교인들은 함께 기도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놓이매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23-24)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31)고 했습니다. 즉,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병든 세상을 고치는 도구로 담대히 쓰임 받는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미국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로 쓰임 받은 찰스 피니(Charles Finney, 1792-1875) 목사님은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는 말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이 시대는 충만보다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인 자녀들 세대는 더 더 충만해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영적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시대적인 사명을 위해서 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파워미션! leesungkwon@gmail.com

[정정] 본지 1961호 제 4면 신년메시지 이성권 목사님 교회 이름이 '신티내티 능력침례 교회'이므로 정정합니다.

신년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공중 대표기도 시 반드시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한 기도를 넣도록 하였다. 다만, 기도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고 전하는 메시지가 들어가는 안 된다는 당부도 겸하였다. 혹시라도 지나친 조국사랑(?)으로 정치적 견해가 담겨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교회에서는 정치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불문을 이 있지만, 조국과 북한을 향한 기도는 한국교회 성도의 거룩한 책무이다. 다니엘이 타국에서 자신의 영달에 매이지 아니하고, 조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 것을 보면 교훈이 크다. 신자라면 당연히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성도들이 공격기도 가운데 같이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하는 것은 귀하고 복된 일임이 분명하다.

극심한 진영싸움

최근 한국을 생각하면 그 변화의 속도와 내용들은 가히 어떤 전문가라도 짐작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 급격한 변화들에 대해 온 국민이 이를 인정한다는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의 극심한 진영싸움으로 나뉘어진 것을 본다. 페이스북 같은 곳에도 일방적인 선전포고들이 무수히 많음을 본다. 살아있다는 것

봉쇄하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본다. 누가 보아도, 부끄럽 없이 내놓고 거침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향해 정말 무소의 뿔처럼 달려간다. 마음에는 메시지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당부도 겸하였다. 혹시라도 지나친 조국사랑(?)으로 정치적 견해가 담겨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교회에서는 정치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불문을 이 있지만, 조국과 북한을 향한 기도는 한국교회 성도의 거룩한 책무이다. 다니엘이 타국에서 자신의 영달에 매이지 아니하고, 조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 것을 보면 교훈이 크다. 신자라면 당연히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성도들이 공격기도 가운데 같이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하는 것은 귀하고 복된 일임이 분명하다.

저들 야당의 빈약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과거 저들이 여당일 때 행한 인과에 의한 사필귀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난 총선이 진행될 때, 진박타령을 하면서 얼마나 권력놀이에 취해 있었는가? 이를 방조하며 한가로운 지난 이들이 누구인가? 결국은 그 일들로 인해 지금처럼 계산에 영리하고 치밀한 정권에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것을 본다. 억울한가? 많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이들은, 조용히 시대를 분별치 못하고 호시절을 즐겼던 그 책 임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반면에 정권을 취한 이들도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까지 군소범당들을 모아 그 힘을 행사하면서 국민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면 그것 또한 저들 야당처럼 또 다른 울무와 족쇄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권력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으

연장의 대표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고등학생에게까지도 투표권을 주어서 고등학생이 정당입당식에 참석하며, 그들을 보며 진심으로 학생의 미래에 대해 교훈하여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그들을 반기며 눈물 흘리는 노회한 정치가들이 있음을 본다.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이익의 목적 앞에서, 도무지 정의와 양심 나라와 민족에 대한 생각과 고려가 전혀 없음을 탄식하게 된다.

이에 대항하는 야당을 보면 거기에도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인다. 지리멸렬하기가 끝이 없다. 작금의 한국 정치인들은 여당과 야당 가릴 것 없이 이들에게는 역사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더 분명히 말하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한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땅의 모든 권력은 세상 사람들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모든 권력은 하늘에서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 세상 사람들도 '임금은 하늘이 내린다'는 말을 한다. 임금으로 표현되는 정치 권력은 하늘이 내린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찌 대통령만 그럴 것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

적으로, 스스로 자신들의 행한 일들이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진영논리에만 맞는 것임을 자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은 정권이 바뀌면 자신들이 행한 동일한 방법으로 칼날이 들어올 것을 결코 상상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이 선한 정치를 펼쳤으면 그렇게 무도하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마치 조선 시대의 사화(士禍)를 보는 것처럼, '명을 거역하다니, 무릎을 꿇어라, 네가 내편이 아니면 너는 죽음이다.' 이런 일을 간접 선포하고 있는 시대 앞에 무슨 논리의 말이 힘을 쓰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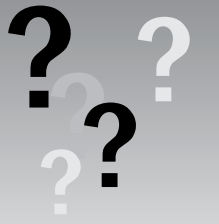
그러나 한편 정권이 바뀌고 가정해보아도 별수가 없어 보인다. 모든 것이 원상태로 복귀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못할 것 같다. 그러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속으며 보고 또 보았다. 당할 사람은 철저히 당했다. 결국, 악순환의 반복이 한국역사 안에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낙심과 실망 중에 기도 많이 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한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애국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지난 2019년 한 해를 돌아볼 때 교회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늘 내 옆에는 친한 교우가 별로 없습니다. 나 자신이 교우들과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한데 2020년에는 정말 잘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LA의 Yoon Lee

A: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상담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렌느라는 한 부인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고민하다가 상담가로 알려진 필립스 원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의 남편은 저보다 시어머니와 더 가깝습니다. 일전에 제가 남편에게 당신 어머니와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하겠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그동안 어머니에게 더 큰 은혜를 입었으니 어머니를 먼저 구하겠다고 합니다. 원장님 저는 몹시 괴롭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장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친애하는 아렌느, 수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늘 느긋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생활 속에서 내 주위에 친한 교우가 없다면 내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을 실천해 보십시오.

긍정적 자아상...불평 말고 칭찬, 격려, 경청, 필요 채워줘야

1)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십시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상당부분은 내 자신의 자아상(Self-image)과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내 자신이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정적인 자아상(Negative self-image)을 가진 사람이면 사람들이 피곤함을 느껴 내 옆에 잘 오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난로 옆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내가 인간성이 차고 늘 부정적이면 사람들이 나를 피합니다.

2)절대 불평이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인간관계에서 불평, 시기, 비난만 하지 않아도 절반은 성공합니다. 늘 만나면 남을 비난하거나 혹평을 하면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 "뒤에서 나에 대해서도 좋게 말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피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지금껏 나쁘게 말한 적이 없다. 그의 장점만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3)칭찬하고 격려하라. 경험상으로 볼 때 사람들은 교훈과 책망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법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7대 언어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덕분에입니다. 해보겠습니다. 훌륭합니다. 기대됩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상대방에게 말하는 기술(Art of speaking)이 필요합니다.

4)잘 들어주라.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의 말은 잘 듣지도 않고 혼자서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가까이 들어주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간관계의 최고의 기술을 발휘하게 됩니다.

5)필요를 채워주라. 한 낚시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딸기 아이스크림을 무척 좋아하지만 물고기를 낚을 때는 낚시대와 연줄이 지렁이를 매단다. 상대방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십시오. 그가 대화를 원하는지 아니면 위로를 받기 원하는지 집대나 침을 원하는지 살펴 정성을 다해 배려한다면 그것이 매우 작은 일일지라도 사람들은 만족과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 사필귀정, 정의와 양심

은 이성과 양심이 함께 작동하는 것임에도, 그저 자신이 쓴 안경의 색깔에 따라 모든 것을 한쪽으로만 해석하고 판단하고 심판한다. 자신이 절대자와 같은 입장에서 굴복만을 요구할 뿐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배려와 이해가 없다.

최근 한국사회에 드러난 전무후무한 진영싸움의 갈등의 일들로 인해 근심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목사가 만물박사가 아닌데도, 답이 뭐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정치적 지향점과 생각이 있다하여도, 다양한 관점을 가진 성도들을 묵화하는 목사로서 어떻게든 영적인 부분에서 생각들을 정리해 답을 주고자 한다. 게다가 한기총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목사님으로 인해 기독교의 정당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묻는 분들도 많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나누었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세상일-사필귀정

세상일의 보편적인 기준과 흐름을 먼저 생각하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적절 한 양비론으로 또 다른 모로움을 드러내주고 싶어 아니다. 국정의 주도권을 가진 이들은 늘 견제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그런 것조차 원천적으로

로부터 세상 권력의 득세와 몰락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원리가 적용됨을 생각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정면 대결에 대한 기사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누가 제 무덤을 판 것인가?'라는 제하의 내용이였다. 어느 한편 누구가는 시 간이 흐른 뒤, 결과의 열매로서 제 무덤을 열심히 판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권력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와 양심이 다. 이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질 것이다. 저들은 오직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들만이 국민이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가감 없이 들어줌으로서, 자신들의 권력이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라고 믿는 듯 하다. 대통령은 오직 총선 투표일만을 목적하며 국정운을 운영한다고 비판을 받는다. 무슨 짓(?)을 해도 다 음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일에 폭주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되는 국가예산이나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법에 대한 것을 말할 수 있다. 제대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엄청난 액수의 세수증액을 통해, 밀정 한 생계가 있는 노인들이나 청년들에게도 혜택을 끼쳐 정권

남게로 말미암는 다고 믿는 것이 신자의 세상을 향한 바른 자세가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 누가 권력을 취하는가에 상관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롭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를 진리로 믿고 순종하는 이들은 지혜의 생명력 안에서 참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인간의 본성적 부패

한국을 방문하고 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저렇게 싸우는데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는 것이다. 너무나 심각한 진영싸움으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다. 앞장 서서 상호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들의 말과 글을 살펴보면, 저들은 더 이상 같은 국민이 아니라 영원한 적일 따름임을 서슴없이 표현하고 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정권을 지켜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감히 국민의 세금으로 대표행위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이다. 원 주인인 국민이 낸 돈을 다시 돌려주며, 생색내며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질문을 해본다. 양심과 생각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 역설

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부르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매년 부르는 그 노래가 신앙고백처럼 들려지고, 기도의 언어가 된다고 한다며 하나님께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답입니다. 더구나 한국 교회들이 많이 쇠락하여졌다 하여도 여전히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민족이 아닌가? 주님의 핏 값으로 사신 교회가 새벽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민족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은 참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길 복된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부패한 인간은 권력을 취하면, 더욱 죄성 가운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의지하며, 더욱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분쟁 없이 오직 은혜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한다. 싸우고, 나누고, 갈등함의 중심에는 미래를 향한 비전과 꿈이 없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따름이다. 교회나 가정, 민족도 마찬가지다. 성경은

분쟁 중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분쟁하는 민족은 결코 세워질 수 없다. 정당한 정치권력 다툼이어야지 분쟁하면 안 된다. 정당성을 가능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방향이다. 방향이 민족과 국민,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들이 아니면, 결국 인간적인 삶의 욕심에 기인한 내용임을 알게 한다. 열강 속에서 조국을 위해 기도한다. 주여 우리 민족이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은혜로 세움 받는 나라 새해가 되면서 기도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작아지지 않도록'도와 달라는 것이다. 상황과 환경이 핍절하고 좋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런 말을 듣다보면, 당

연한 목회의 한 부분이지만,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본다. 되겠나? 우짜겠노? 뭘 하겠노?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성도들에게 선포한다. 특별히 장로님들이나 직분자들에게 '별수 없다. 안된다, 못한다' 그런 말 하지 않고 더욱 기도하시라고 권면한다. 중직들의 믿음 없는 말, 은혜 없는 말은 목사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마음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며 기도드린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기도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주여 호와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여주시옵소서!

davidnjon@yahoo.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중국의 비요(Biyao)

중국 은 지형, 기후, 언어, 민족 별로 다양한 나라다. 중국내에는 거의 180개의 민족집단이 있는데, 중국의 남쪽 윈난성 지역에서 거주하는 105,800 비요인들도 이에 포함된다. 그들은 중국의 55소수 민족 중 하나족에 포함돼 있다. 비록 하나와 그들의 하위 종족의 정확한 근원에 대해서 알려진 바 없지만 전설에 의하면 그들의 조상은 유목민이었으며 먼 북방에서 점차 남하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의 언어가 티베트 버마과에 속하기에 일부는 그들이 티베트에 기원한다고 믿고 있다. 하나족은 숲이 우거진 산악 지대, 풍부한 강수량, 비옥한 토양 지대에서 살며, 가파른 산 경사면을 따라 층층이 단구를 만들어 농사짓는다. 높은 산악지대에서 수세기 동안의 고립된 생활은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함을 가져왔다. 그들이 사용하는 10개의 지역 방언은 1949년까지 문자가 없었다.

삶의 모습

가족단위는 비요인들 사이

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가족생활의 양상은 종교에 따라 틀러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일부일처는 어떤 지역에서 통하지만 반면 일부다처가 다른 지역에서 성행하기도 한다. "가족의 권위"는 가장(남성 지배)과 부계를 따른다. 이는 남자아이가 아버지의 혈통을 잇고 여자는 남편의 혈통에 속하게 되는 것을 뜻하며 또한 남자 아이에게만 아버지의 이름을 대를 잇도록 주어진다. 비요는 친절히 접대하는 문화가 잘 알려져 있다. 손님이 비요 족의 집을 방문하면 그는 포도주와 차를 대접받으며 만약 그가 음료를 거절하면 가족들은 심하게 상처를 받게 된다. 만약 손님이 음료를 마시면 주인은 최선을 다해 손님들 공손하게 접대한다. 비요는 매해 몇 개의 큰 명절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

한 것은 신년 축하다. 두 번째는 시월 추수 기간 동안 7일간 펼쳐지는 명절이다. 새해를 맞은 날의 오후에는 진행자가 지 난해와 작별을 고하기 위해 까 망게 된 쌀로 만든 3개의 공을 뒤쪽으로 던지고 신년을 축하하기 위해 하얀 쌀로 만든 3개의 공을 앞쪽으로 던진다. 그런 후에 특별한 밧줄을 돌리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 그네타기를 즐긴다. 그들은 이것이 재앙을 막아주고 한해를 풍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 행사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모닥불에 구워먹고 마시고 춤추며 노래한다. 자정이 되면 진행자가 축제가 끝난 것을 알리기 위해 그네의 밧줄을 끊고 새로운 해의 시작을 고한다. 축제기간동안 비요는 파란색 또는 검은 색으로 염색된 손으로 짠 멋진 전통의상을 입

는다. 남자는 특유의 자켓과 티베트를 두르고 여자는 색깔이 없는 블라우스와 특별한 모자를 착용한다.

신앙

전통적으로 비요는 무생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하는 애니미즘, 다신교, 조상신 등이 혼합된 신앙을 갖고 있고, "거룩한 언덕"에 있는 나무들이 그들을 인도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다. 오늘날 그들은 여전히 이와 비슷한 신앙에 머물러 있다. 그들은 매우 미신적이며 장애가 있는 아이나 쌍둥이를 낳으면 불운한 것으로 여겨 아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부모는 추방당하며 그들의 집과 소유물들은 불살라진다. 그들은 다스리는 많은 신의 존재를 믿고 있으며 하늘과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을을 보

호하고 병을 가져오는 악귀들로부터 보호한다고 믿는다. 비요에게는 3개의 대표적인 종교지도자가 있는데 주이마(zuima)는 부족 중에서 가장 나이든 연장자로 모든 종교행사를 주관하는 남성이다. 베이마(beiema)는 주술을 행하는 남자무당이며, 남자 또는 여자도 될 수 있는 니마(nima)는 예언하고 의료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중국정부가 기독교를 엄격하게 금지한 이후로 현재 비요 사이에서 사역하는 단체는 없다. 성경은 아직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지 못했고 기독교방송도 없다. 중보와 복음사역이 이 민족에게 급히 요청되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국 교회 37% "현금늘었다"

최근 1-2년 사이 미국의 경제 상황이 교회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목회자가 늘어났지만, 성도들의 헌금 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리서치가 1000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해 조사한 결과다.



6일 라이프웨이리서치에 따르면 응답자의 26%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 교회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1년 전 조사 당시 14%에 그쳤던 것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한 목회자는 1년 전보다 15% 포인트 감소한 30%로 조사됐다. 경제 상황이 교회 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답변이 증가한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2008년)로 인해 미국 내 경기침체가 이어 지던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조사에서는 흑인 여성 목회자가 백인 남성 목회자보다,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경제 상황으로 인해 교회 운영이 힘들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반면 '성도들의 헌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37%)는 응답은 '감소했다'(2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지난해와 비슷하다'(37%)는 응답을 포함하면 목회자 10명 중 7명 이상(74%)은 '경제 상황이 헌금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평가한 셈이다.

2018년에는 미국 정부의 세제 개혁이 이뤄졌 다. 일각에선 "교회 헌금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교회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목회자 64%는 "세제 개편이 교회 운영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스콧 매코널 라이프웨이리서치 디렉터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목사가 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9월 24일 까지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은 95%, 오차 범위는 ±3.2%다.

미국·이란 분쟁지역 이라크는 '성경의 땅'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이라크의 오랜 내전 상황이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살해했고 이란은 8일 이라크의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했다. 양국이 확전을 경계하면서 소강국면에 들어갔지만, 2003년 미군의 침공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이라크의 비극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성경의 땅인 이라크를 위한 기독교



인의 기도가 절실하다.

12일 선교계와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라크는 창세기 2장 14절에 등장하는 티그리스강(히테겔)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다. 바벨탑(창11)이 건설됐고 유프라테스 남쪽 유역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옛 고향이자(창11:28, 31)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곳이다(창15:7, 9:7). 사도행전 7장 2절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라고 기록한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 이라크 북부 잇수르 제국에 의해 망하는데, 요나 선지자가 선교한 니느웨(현 모술)가 이라크 땅에 있다. 이라크는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있던 곳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 느고가 바벨론의 풀무불에 던져졌다 살아났으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 일했다.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대적하면서 스스로 느부갓네살의 후예라 자처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초대교회기 시작된 오순절 사건 직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에 속해 있었다(행2). 기독교인들은 1세기부터 살았으며 오늘날에는 칼데아가톨릭교회, 아시리아동방교회, 시리아정교회 등 고대 기독교 전통을 가진 교회들이 주를 이룬다.

이라크는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1980년 사담 후세인 정권이 이란을 침공하면서 줄곧 전쟁을 치렀다. 이 전쟁으로 빛더미에 오른 후세인은 빛 독축을 하던 쿠웨이트를 침공했다가 미군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에게 침공당하는 걸프전을 겪었다. 걸프전 이후 이라크는 남부와 북부가 유엔에 의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겪었다. 2003년 미군의 침공을 받아 2011년까지 이라크 전쟁을 겪었고 2014년부터는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의 발흥으로 혼란의 땅이 됐다.

기독교인들은 40년간의 포화 속에 이라크를 떠나야 했다. 140만명에 달하던 기독교인은 2003년 미군 침공 이후 30만명으로 줄었다. 이후 IS에 의한 핍박이 심해지면서 남아있던 기독교인들도 대부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WEC선교회는 "고통받은 이라크에 평화가 찾아오도록,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이라크 사람들이 예수를 평화와 구원을 가져오는 유일한 분으로 알게 되기를 기도하자"고 요청했다.

'동성애 예수라니?' 화난 브라질에...

브라질 법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성애자로 묘사한 넷플릭스 영화 '예수의 첫 번째 유혹(The First Temptation of Christ)'에 대해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넷플릭스는 법원의 판결에 '사법부의 자의적인 검열' 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난 9일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민사법원의 베네딕트 아비카르 판사는 "영화사 포르타 두스 폰 두스가 제작한 '예수의 첫 번째 유혹'이 국민 대부분이 기독교인인 브라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넷플릭스에서 상영 금지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이 8일 보도했다.

러닝타임 46분짜리의 이 영화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고 30세 생일을 맞아 집으로 돌아온 예수가 남자 친구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소개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룬 영화다.

영화 속에서 예수는 동성애자로, 마리아는 대마초를 피우는 약쟁이로 묘사됐다.

담임목사 청빙

오하이오 에슈타블라지역에 소재한 에슈타블라 한인교회에서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실 담임목사님을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1. 정규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으로 목회 경험이 있는자
2. 미국거주에 결격사유가 없으신분
3. 한국어와 영어 소통이 가능하신 분

제출 서류

1. 이력서
2. 본인 및 가족소개서(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포함)
3. 최종학위 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각 1부 (사본)
4.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동영상 2회분
5. 추천인(목회자only) 2명이상

제출처

이메일: sddkim206@gmail.com
연락처: (440)822-9390
우편메일: 2300 Austinburg Rd., Ashtabula, OH 44004

제출마감: 2020년 3월 15일

기타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에슈타블라 한인교회
2300 Austinburg Rd., Ashtabula, OH 44004
koreanashtabula@gmail.com

2020 신년부흥성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찬 축복과 기적의 자리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사: 장경동 목사/저녁
일시 1월20일-22일/ 시간: 저녁 7시30분



김호민 목사/새벽
일시:1월21일-22일/시간: 새벽 5시30분



고귀남 목사
동문교회 당회장

동문교회 담임 고귀남 목사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820-0003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89. 장석영(1894-1982)

장석영은 1894년 8월 3일 경기도 강화읍에서 장형래와 박마르디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다섯 살에 최측사 학당에서 한문을 공부한 후 강화 장두교회 교당에 입학하였다.

1906년 3월 강화읍 보창 고등소학교를 졸업한 후 이동휘 교장의 주선으로 이듬해 9월 서울 보성중학교에 입학하였고, 3년6개월 공부한 후 본교를 졸업하였다. 보성 중학생이었던 1909년 그는 찰스 S. 데밍 선교사에 게서 세례를 받았다. 중학 졸업을 전후해서 벤저민 프랭클린 전기를 탐독하면서 그는 낮에는 종로 YMCA 영어과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보성전문학교에서 법률을 공부했다. 1913년 3월 YMCA 2년제 영어과를 졸업하면서 보성전문 법률과를 중단하고 감리교신학교에 들어가 2년간 공부했다.

1915년 3월 충남 논산읍 교회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1918년 봄 장석영은 서울의 수표교교회와 자교교회의 주일학교장을 역임하면서 서울 종교교육사업을 관장하였다. 이때 그는 감리교신학교에 복학하여 공부하였고, 본 신학교 교수였던 제임스 E. 피셔 선교사의 한국어 선생으로도 활동했다.

뉴욕한인교회

1926년 장석영은 대요 마루 선편으로 유학차 도미하여 그해 6월 18일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디트로이트에 거주하는 그의 처남 김추성의 집에서 여생을 보낸 후 그해 9월 그는 테네시주 내쉬빌에 있던 스카릿 대학에 입학했다. 이듬해 2월 그는 뉴욕 콜롬비아대학에서 교육학을 공부하였는데 뉴욕한인교회의 4층 건물에서 거처한 모양이다. 그의 처남의 주소를 찾기 위해 1927년 7월 14일에 신한민보에 광고를 냈을 때 그의 처가 뉴욕한인교회 주수인 459 W. 21st Street이었다.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생인 장석영이 뉴욕한인교회에서 담임 전도사로 사역한다. 적어도 1928년 1월 5일부터다. 그해 1월 5일에 신한민보에

재한 뉴욕에배당 새 번지와 함께 담임목사로 장석영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같은 광고가 그해 4월 9일에도 신한민보에 게재되었다. 뉴욕한인교회 새 주수는 633 W. 115th ST였다.

1928년 7월 1일에 두 번의 모임이 있었다. 그날 오후 1시에 뉴욕 시외 밴코트랜드 공원에서 30여 명의 뉴욕한인교회 교인들이 야외회로 모여 재미있게 지냈다. 야외회가 있던 그 날 오후 7시에는 뉴욕 125가 거리에



장석영 목사

임 초가 사회를 맡아 먼저 취지를 설명한 후 광림대의 지도로 찬송가 149장을 합창하고, 3명의 부인이 246장을 합창하였으며, 김여택이 이 목사의 약력을 소개했고, 광림대가 추도사를 하였으며, 장성욱과 오기은과 임 초가 각각 에사를 한 후 부조금을 모금하였다. 이 부조금은 고 이 목사의 유족을 위한 동정금이였다. 이날 모금한 부조금은 총 33달러였다. 이날 부조금을 낸 사람 중에 장석영도 있었다.

신한민보가 누가 얼마를 부조했는지를 공개하였으니 금액 표시를 하지 않는 오늘날과는 대조적이다. 소개하면 홍득수, 윤희섭, 이기은이 각각 5달러를, 유태경 부인, 장덕수, 김마리아, 무명이 각각 2달러를, 김영옥, 장석영, 안승화, 김도연, 김재희, 김정은, 김영수, 이선행, 허 정 그리고 서민호가 각각 1달러를 부조했다.

뉴욕한인교회 예배당 새 번지 광고가 그해 9월 6일자 신한민보에도 게재되었다. 아마 주일예배에 참석자가 평소보다 적었고, 평소에 나오던 교인이 결석한 모양인데, 주일예배 참석자가 줄거나 평소에 잘 나오던 자들이 결석할 경우 목회자의 걱정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 모양이다. 어쨌든 장석영이 다시 새 번지 광고를 냈다.

1928년 12월 27일에 장석영은 일반 형제자매에게 신한민보에 근하신년 광고를 냈다. 같은 근하신년 광고는 이듬해 1월 3일에도 게재했다. 그

박사가 참석했기 때문이다.

애국가를 합창한 후 장석영이 기도했고, 이후 사회자 이용직의 개회사, 김승제의 인도로 국기 경례시, 이철원의 독립선언서 낭독, 안철헤리의 독창, 임 초의 축사, 서재필 박사과 힐버트 박사의 연설, 임아영의 독창, 김마리아의 독립운동 진상 설명, 임보배의 피아노 독주, 허 정 의 감상담, 그리고 만세삼창으로 이어졌고, 이후 기념사진을 찍었다.

위의 삼일절 행사에 참석한 장석영이 목사로 소개되고 있다. 그래서 그가 1929년의 삼일절 전후까지 뉴욕한인교회를 사역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렇다면 그의 목회는 1년 3개월이다.

뉴욕한인교회 목사직을 사임한 장석영이 한국으로 귀국하던 1933년까지 본 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1929년 10월에 뉴욕학생회 신입회장으로 콜롬비아대학 교육과에 재학하던 장석영이 선출되었고, 서기에 문장옥 그리고 회계에는 노재명이었다. 이때 소개된 아래의 뉴욕 유학생들이 장석영과 함께 뉴욕한인교회 교인이었을 것이다: 뉴욕의학연구소의 의사 강해동과 의사 이우찬, 뉴욕대학 신학과와 김마리아와 본 대학 상과의 최순주, 콜리아드음악학교 성악과의 박리근, 콜롬비아대학 화학과의 나기호, 본 대학 정치과의 최정집과 윤희섭, 본 대학 신문과의 이원철, 본 대학 광산과의 김건후, 본 대학 역사과의 문장옥, 본 대학 법률과의 이동제, 본

1933년 3월 장석영이 미국복합리교 뉴저지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는다. 목사안수를 받은 그달 23일에 장석영은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귀국한 그해 그는 연희전문학교 교수 겸 교목이 되었다.

그런데 불온사상으로 배교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일제는 1942년 11월에 그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해임당한 다음 달인 그해 12월에 개성 중앙남부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였고, 1928년 9월 6일자 신한민보의 뉴욕한인교회 새 번지

1945년 3월에 신한민보의 뉴욕한인교회 새 번지 신문리교회로 전임하였는데 그곳에서 조국의 광복을 맞았다. 해방 후 장석영은 연희대학교로 복귀하여 교수와 신과대학장을 역임했고, 이후 장석영은 감리교신학교 교수가 되었다.

한국 감리교회가 해방 후 일제에 저항했던 재건과와 그러지 않았던 복흥파로 분열되었을 때 그는 1948년 1월에 재건과 감리교회의 감목으로 추대되었으나 복흥파 감리교회의 강태희 감독과의 대화로 두 감리교회를 통합하고 1949년 5월 김유순 목사를 감목으로 선출했다.

1950년 6월부터 2년간 대한기독교청년협의회 총무를 맡았는데 1951년 4월에는 북미 YMCA 100주년 대회에 한국 YMCA 대표로 참석하였다. 한편 그해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태평양대학교에서 명예 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53년 이후 그는 공직에 있으면서 출판물 거둬들였다. 그해 9월 장석영이 정동제일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었을 때 '기독교 윤리와 사회제도'를 출판했고, 이듬해 '민주주의와 신도덕'을 펴냈다. 1955년 4월부터 그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겸 교목으로 재직하다가 이듬해 4월에 기독교 학교 교목 회장으로 피선되었고, 1958년 2월에 한국기독교교육협회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향상의 도'를 출판했다.

충남 예산을 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있는 지 2년 후인 1962년 2월에 한국기독교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이듬해 1월 연세대학교 재단이사에 선출되었는데, 이해에 '새 이상의 종교'를 펴냈다. 1967년 10월에 은퇴한 후 장석영은 통일교의 재단법인 기독교연합운동협회 총무직을 맡아 활동하였는데 그즈음인 1971년에 '기독교 연합운동의 진상과 문제점'을 출판했다. 그는 1982년에 향년 88세로 별세하였다.

damien.sohn@gmail.com

콜롬비아 대학 다니며 뉴욕한인교회에서 담임전도사로 사역 1933년 미북감리교서 목사안수 받고 귀국, 목회와 저술활동

던 중화원 식당에서 담임목사 장석영의 사위로 한국 감리교회의 신임 감독으로 선임된 제임스 C. 베이커 목사를 위한 송별회가 있었다.

베이커 목사는 미국 일리노이대학 인근에 있던 교회에서 21년 동안 목회하였는데 그해 캔사스 시에서 개최한 미국북감리교 총회가 그를 한국 감목으로 선출하였다. 그는 21년 동안 미국 일리노이대학과 관계가 많았고 교육사업에 매우 관심이 있었으므로 한국 내 미션스쿨의 발전을 크게 기대해 볼만했다.

송별 석상에서 신임 감독 베이커 목사는 20여 년이나 살던 주택을 떠나게 되어 매우 섭섭하지만, 한국 서울에 가면 새집을 얻게 될 터이니 기쁘다면서 한국 가변 교회사업 밖에도 교육과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협조가 말했다. 그는 그해 9월 8일에 시애틀을 통해 한국으로 갈 예정이었다.

그해 8월 5일에 뉴욕시에 거주하는 한인동포가 전 상향한인감리교회의 고 이대위 목사의 추도회를 가졌다.

는 그의 목회공간을 교회 밖까지 확장하였고,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확대했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1929년 1월 31일자 신한민보에 장석영을 사냥개로 비판하는 "뉴욕에 왜 사냥개"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 글에는 그 외에도 황창하, 신윤국, 류태경 등 3명도 사냥개로 비유했다. 장석영은 두 번째 적히는데 "이이는 소위 목사 노릇을 하는 자로서 황창하와 같은 행동을 하는데 거기다가 편벽심이 가득하여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니 그자도 우스운 인물"이라고 적었는데 이 비판에 대한 그의 반박하는 글을 신문지상에서 찾을 수 없으니 정작 그는 이 글을 무시한 모양이다.

같은 해 삼일절 10주년 경축식 행사는 3월 1일 하오 7시 30분에 뉴욕한인교회 예배당에서 남은 자리가 하나도 없이 참석했다. 다수의 외국 손님과 뉴욕에 있는 유명한 세 신문사의 기자들이 방청했는데 미국에 잘 알려진 서재필 박사와 고종의 정치고 문이었던 내한선교사 호머 B. 힐버트

대학 교육과의 김현철, 오천석, 허 찬, 윤성순과 노재명, 그리고 헌터중학교의 유에스터.

1930년 1월 31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뉴욕한인교회 예배당에서 교인 총회로 모여 작년도 재정보고 후에 본 교회 새 이사회를 선출했는데 장석영이 안준수와 남궁염과 함께 이사회원으로 선출되었다. 삼일절 기념식 순서 지정위원이었던 이기봉과 조국에 따르면 1930년 삼일절 기념식에서 장석영은 흥득수와 함께 연설을 담당하였다. 그 외 순서담당자는 사회에 김윤석, 축사에 윤희섭, 합창에 안윤희 외 4인, 그리고 독립선언서 낭독에 고재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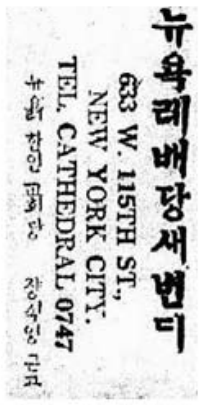
장석영은 그해 뉴욕의 콜롬비아대학 교육과를 졸업했다. 이어 동 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하여 1932년 3월에 석사학위를 얻었다. 그해 뉴욕 유니온신학교에 입학하였고 1년간 공부한 1933년에 그는 신학 석사학위(B.D.)를 받았다.

귀국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 | | | | | |
|---------------------------------------------------------------------------------------------------------------------------------------------------------------------------------------------------------------------------------------|---------------------------------------------------------------------------------------------------------------------------------------------------------------------------------------------------------------------------------|---------------------------------------------------------------------------------------------------------------------------------------------------------------------------------------------------------------------------------------------------|--------------------------------------------------------------------------------------------------------------------------------------------------------------------------------------------------------------------------------|----------------------------------------------------------------------------------------------------------------------------------------------------------------------------------------------------------------------------------------|---------------------------------------------------------------------------------------------------------------------------------------------------------------------------------------------------------------------------------------------|
| 뉴욕몽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절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 토 Tel: (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 뉴욕새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 | 뉴욕새사라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1부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388),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
|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pcpcny.org, Tel: (516)387-8940, 8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 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주일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 성경공부: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 주일 2부 오후 1:50 주일학교 오후 1:50 청년예배 오후 3:20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8:30 영어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ema Rd, Manhasset, NY 11030 |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
|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 | | | | |
|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오아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 멕시코 현지인 교회 담임목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현지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교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pe MEX(멕시코) |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11)



이운석 목사 (NY 부르클레인교회)

제 4권 어거스틴(Aurelius Augustinus)의 "고백록" (1)

들어가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시점에선 한 번은 인생을 돌아보며 참회(懺悔)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시간은 그동안 자신을 사로잡아왔던 주변의 시선이나 평판을 의식하지 않고 가장 처절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될 것이다. 물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과정을 통과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고백에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에겐 나오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이 책을 쓰도록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회개 기도를 통

독, 역사가, 수사학자, 교회회리자의 별명들을 가지고 있다. 그는 중세뿐 아니라, 종교개혁, 그리고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 계속해서 영향을 끼쳐온 사람이다. 그는 목회를 하면서도 수많은 책들을 저술하였다.

그의 저서들은 117권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펠라기우스주의 반박론', 삼위일체론을 중심으로 한 '아리우스주의 반박론', 신성세력으로 부각되던 이교주의자에 대한 논박인 '신이교주의 반박론', 신앙행드북 등은 기독교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자세히 알려져 있다. 어거스틴이 72세에 쓴 자전적 평가이며 많은 작품에 대한 요약인 '성찰록'(Retractions)에서도 그의 삶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아버지는 로마의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 타가스테에서 이교도였으나, 신실한 기독교신자인 아내 모니카의 영향을 받아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성공과 출세를 위해 어거스틴을 교육시켰다. 그는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잠시 학업을 중단했지만 370년 고향 유지의 도움을 받아 고향을 떠나 로마, 카르타고 등지에서 수사학을 공부했다. 그런 가운데 카르타고에서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의 글 '호르텐시우스'를 읽고 철학에 심취하게 된다. 그는 재산이나 명성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철학에 매료된 어거스틴은 그렇게 철학에 매료된 어거스틴에게 기독교신앙은 '문화인'이 받아들이기에는 비철학적인 것으로 비쳐졌다.

그는 그 당시 유행하던 신 플라톤주의 저작들을 읽으며 기독교 사상에 대해 점차 깊이 시작했다. 어느 날, 밀라노의 정원을 거닐던 그는 아이들이 정원에서 놀며 노래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집어 들고 읽어라, 집어 들고 읽어라(Tolle lege, tolle lege)" 그 목소리에 이끌려 그는 가까이 있던 성서를 들고 읽었다. 그 때 펼쳐진 성경은 바로 로마서 13장 13-14절이었다.

"그 말소리가 소년의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계속 반복되었던 말은 '그것을 집어 들고 읽어라, 그것을 집어 들고 읽어라'라는 후렴처럼 반복되는 노래였습니다. 나는 곧 눈물을 그치고 안색을 고쳐어 어린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할 때 저런 노래를 부르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전에 그런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성경을 펴서 첫눈에 들어온 곳을 읽어 보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시립대학교 교수)

아버지의 눈물

1월 첫 주에 학교 학장실에서 이메일이 왔다. 동료 교수의 열여섯 살 된 아들이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토요일에 척추수술을 하게 되었으니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자는 메일이었다. 전신마비가 될 수 있는 부상이었는데 수술이 가능한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했다. 아들이 수술한 며칠 후 그 교수님은 불학기 첫 강의를 하러 오셨다. 수술이 잘 되었는지 인사를 했더니 집으로 퇴원해서 쉬고 있다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다음 날 교수 회의로 모였을 때 교수님이 아들이 다친 상황, 수술 경위를 설명했다. 급하게 달려간 병원에서 수술을 바로 해주기로 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좀 기다려야 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로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이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하루 전에 나에게 보였던 평안은 사라지고 그동안 급한 상황에 대처하느라 누르고 있었던 감정이 동료들 앞에서 그대로 흘러나온 것이다. 한참을 울먹이는 교수님을 보며 아들의 아픔을 뺏속까지 느끼는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졌다. 그 교수님의 눈물 속에서 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셨다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두 번 기록되어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며 우셨고, 나사로의 죽을 앞에서 우셨다. 평소엔 진본 있는 목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동네 교회로 집회를 오셔서 참석했다. 그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던 누가복음 19장을 설교하면서 눈물의 사전적 정의를 말했다. 웹스터 사전의 정의는 눈물의 정서적인 면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눈물의 성분이나 기능만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어 사전은 언제 눈물이 나오는지 눈물에 대한 감정적인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나무위키에서 정의하는 눈물은 "슬픔이나 기쁨, 분노 등의 격한 감정, 고통을 느낄 때, 하품을 할 때, 눈에 이물질이 들어갈 때" 흘러 나온다고 되어있다.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은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한 연민의 눈물, 죄의 결과로 온 죽음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든다.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사랑을 모른 채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는 예수님은 얼마 남지 않은 십자가 형벌 앞에서 인간을 향한 연민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의 눈물은 기록되어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셨다는 표현은 성경에 물론 없다. 그러나 아들의 고통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마음, 할 수만 있다면 아들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우리가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도 그렇게 애절한 사랑이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릴 적부터 줄줄이 외던 성경구절이지만 그 뜻이 새롭게 다가온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죽음의 고통이라도 대신 당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처럼 멸망의 길을 가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새삼스럽다. 고통 중에 있던 아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교수님을 보며 부모 속을 많이 찢고 늦게야 철든 자식처럼 그렇게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졌다.

이 큰 사랑,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과 아픔 속에 늘 동행하시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이 땅에 머물고 계셨더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며 여전히 우실 것 같다. 그러나 "너희가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울 한해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lpyun@apu.edu

전체 기독교에 남긴 어거스틴의 공적과 공헌은 가히 기념비적 '고백록' 통해 깊은 회개의 체험할 수 있다면 가장 가치 있어

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독자들에게 알려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자는 그의 의도대로 고백록은 철학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던 많은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오랜 세월 진리를 찾아 방황하던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육체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해 고민하던 사람들도 이 책을 통해 위로를 받고 또한 정욕을 이길 구체적인 방법을 인지하게 되었다.

기독교 역사상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고전 가운데 한 권으로 꼽히는 책이기에 우리는 이 책의 내용과 깊이에 익숙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을 통해 깊은 회개의 체험을 할 수 있다면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책으로 독자들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어거스틴(354-430)은 어떤 인물인가? 그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교부, 철학자, 신학자, 감

동이며, 기독교 사상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 책들을 읽어보면 신앙의 본질을 정확히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고백록'은 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 중의 하나이다.

틸리히(P. Tillich)는 "그는 자신 이후 천년 동안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라고 하였고, 윌리엄스(D. Williams)는 "서양 신학사는 어거스틴에 대한 계속적인 주(註)밖에 안된다"라고 평가할 정도다. 어거스틴이 끼친 불가피한 시대적인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가 끼친 공로와 선한 영향들 중의 하나인 고백록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어거스틴(Augustine, AD 354- 430)의 생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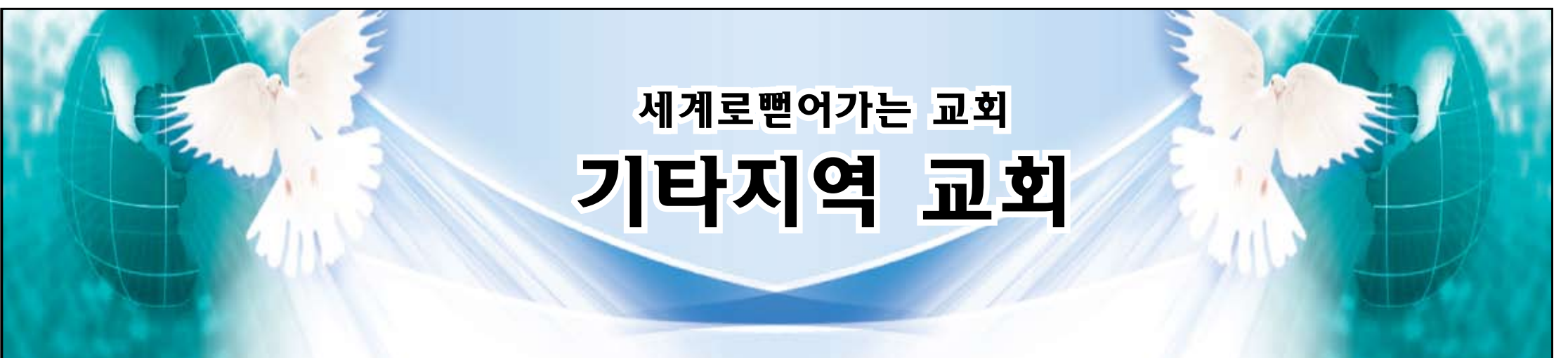
어거스틴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그의 저서인 '고백록'(Confessions)과 제자 포시디우스가 쓴 전기기를 통해

그러서 우연히 마니교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이원론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명확하게 나눌 수 있게 하는 마니교에 쉽게 빠져 들었다. 하지만 마니교에 대한 열정도 그에게 오래 가지 않았다. 그가 품고 있었던 '세상에 가득한 악'에 대한 의문에 대해 대답을 주기에는 마니교의 이론적 체계가 빈약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니교를 떠나게 되고, 28세가 되던 해에 카르타고를 떠나 로마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밀라노로 간다. 그 이듬해 그는 당시 밀라노 근방에서 가장 뛰어난 성직자였던 암브로시우스(Ambrosius, 339-397)감독을 만난다. 그의 설교를 듣게 된 어거스틴은 그의 지혜와 지식에 몰입하게 되었고, 점차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벗어 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암브로시우스에게 빠져든 그는 그의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던 "악"에 대한 의문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그는 기독교에 대한 확신을 얻었고, 드디어 32세에 신앙의 길을 걷게 된다. 그 후 43세에 집필을 시작하여 46세에 집필을 완료한(AD 397-401) 그의 책이 고백록이다. 그 후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기도하고 사색하는 공동체생활을 하기 시작한다. 391년 봄, 카르타고 다음가는 도시인 힐포교회의 간청으로 힐포교회의 감독이 되고 그로부터 4년 뒤 주교가 되었다. 그 후 그는 76세로 삶을 마칠 때까지 수많은 철학, 신학, 그리고 논문과 같은 무거운 무게를 가진 218통의 편지, 500권 이상의 설교집을 남겼다.

"어거스틴 이전까지의 모든 신학과 사상이 어거스틴에게 흘러 들어왔으며 어거스틴을 통해 후대로 흘러나갔다"라는 표현이 생겨날 정도로 전체 기독교에 남긴 그의 공적과 공헌은 가히 기념비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younsklee@hotmail.com



| | | | | | |
|-------------------------------------------------------------------------------------------------------------------------------------------------------------------------------------------------------------------------------------------------------|------------------------------------------------------------------------------------------------------------------------------------------------------------------------------------------------------------------------------------------------|------------------------------------------------------------------------------------------------------------------------------------------------------------------------------------------------------------------------------|-----------------------------------------------------------------------------------------------------------------------------------------------------------------------------------------------------------------------------------------------------------------------------|------------------------------------------------------------------------------------------------------------------------------------------------------------------------------------------------------------------------------------------------------------------|-----------------------------------------------------------------------------------------------------------------------------------------------------------------------------------------------------------------------------------------------------|
|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036 |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 일 예배: 오전 10:00 주요선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한):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목회, 위. 선. 증. 동. 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위헌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 위. 선. 증. 동. 부. (주)일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
|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예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749-8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iejc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 앵커리지열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
| 킬린노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오전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535-1842(1), (254)501-4933(2)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www.i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예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예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목회서신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소서!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2020년은 두 자리 숫자인 20과 20이 겹치는 특별한 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자리 숫자가 겹치는 해는 1000년에 한번 돌아오기 때문이지요. 예컨대 1010년, 2020년, 3030년 말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은 천 년에 한번 돌아오는 특별한 날임을 기억하

기에 사람들은 재미난 의미를 부여하며 얘기하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천 년에 한번 돌아오는 두 자리 숫자가 겹치는 기분 좋은 이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깊이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물론 시간은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흘러가고 인생도 흘

리갈 것이지만 이 소중한 한 해를 축복되고 행복하게 살고 난 후에 "여호와야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소리칠 수 있는 복 받은 새해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철저히 자기를 잘 관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효과적인 시간관리는 물론 건강한 체력관리와 주신 가정 직장 섬기는 교회생활 관리를 복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옛 어른들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리고 "진인사대천명"이란 교 사명언을 남겨주었는데 그 교훈이 매우 성경적이라 여겨지 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맥락일 것입니다. 저는 신년벽두에 시편 71편에 나타나는 다윗의 기도를 새 해를 위한 우리의 기도로 삼아 함께 기도하기를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히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늘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 하소서." 다윗은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로 미래를 준비하였고 기도로 자기를 지켰고 기도로 난관을 헤쳐 나갔고 기도로 역경을 극복하였고 기도로 응답 받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 성공자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은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드리는

우리를 '더욱 창대하게' 해주시는 복 된 새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오늘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빈약하고 초라할지 몰라도 '더욱 창대하게' 해 달라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더욱 창대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야베스처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소중한 허락 받은 새해에 복에 복을 더 받고 지경의 넓혀 주시는 은혜를 받고 주의 손의 도우심을 받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평안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CBMC주최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 및 신앙강연회에서 이춘근 박사가 강연하고 있다

'기독교로 읽는 국제정치' 주제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 및 이춘근 박사 신앙강연회

미주한인 CBMC서부총회(총회장 황선철 장로), 연세대학교 남가주총동문회가 공동주관한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 및 이춘근 박사 신앙강연회가 4일과 5일 양일간 시온성결교회(담임 최경환 목사)에서 열렸다. '기독교로 읽는 국제정치'라는 주제로 첫날 강연회를 인도

한 이춘근 박사는 "진보와 보수를 논할 때 역사 방향에 수레바퀴 끌고 가는 것이 진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이 진보로 치부되는데 그것은 틀린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지구 전체 기독교인 숫자는 늘고 있다"며 "유럽

의 기독교인들은 줄고 있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인들이 많이 되고 있으며 세계인구의 4분의1이 기독교인이다. 미국에서 교회 다니는 자는 2억9천 명이며 그중 복음주의자는 1억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이데올로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과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고 그 속에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추구권이 포함되어있음을 자명한 진리로 믿고 있는 것"이라며 "지구촌 한사람이라도 더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하나님나라로 들어가려는 사명을 가진 국가이며 특별히 바이블 벨트 지역은 신앙이 체험돼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춘근 박사는 둘째 날,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박준호 기자)



청교도 신앙회복과 2020년 선거를 위한 미 전국 각 지역별 연합기도회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제2의 청교도로 한인 사용하시길'

청교도 신앙회복과 2020년 선거를 위한 전국지역별 연합기도회 설명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와 각 도시 교협과 목사회가 공동주최하고 자마(대표 강순영

목사)와 미기총 전국기도연대가 공동주관해 열리는 청교도 신앙회복과 2020년 선거를 위한 미 전국 각 지역별 연합기도

회 설명회가 13일 오전 11시 JJ그랜드호텔에서 있었다.

이번 연합기도회는 △미주한인 기독교인들이 청교도 신앙과 정신을 배우게 하고, 제2의 청교도가 되도록 준비시키고 기도한다 △청교도 미국이 주 400주년을 맞이해 미국에 청교도 신앙회복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한다 △미국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하나님과 성경으로 되돌리려는 열정을 가진 지도자들이 오는 2020년 11월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미국이 다시 하나님과 성경으로 되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한다 (16면으로 계속)



2020 Higher calling Conference에서 참석자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있다

'Worthy' 주제, 350여명 참가

Soon Movement 2020하이얼링 컨퍼런스

Soon Movement(KCCUSA)는 지난 1월 1일부터 4일까지 가든 그로브에 위치한 하이아트 리전시 호텔에서 2020 Higher Calling Conference를 대학생들과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올해는 특별히 가치관이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존재의 가치를 알고 또한 미래를 거룩하게 준비하도록 'Worthy'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Church), 오윤태 목사(SOON Movement 대표) 외에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학생들의 필요에 맞는 강의들을 했고 특별히 이 집회의 목표인 선교에 대한 도전과 헌신의 시간들이 진행됐다.

△첫날은 학생들이 인간의 존재를 가지 있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는 시간과 △둘째 날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치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마지막 날은 인생의 소명을 확신하고 부르심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하는 내용들로 진행됐고, 밤마다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됐고 또한 순모임(스몰그룹모임)

북가주와 남가주의 여러 대학교에서 약 350여명이 참가했고 강사로는 데릴 스미스(Cru Oneness & Diversity Director), Jeff Hyeon(사랑의 교회 EM), 김대훈 목사(New Beginnings of Crosspoint

을 통해 모든 학생들 공동체를 넘어 이웃과 사회를 향해 단결된 마음을 여는 시간들을 가졌다.

특히 이번 전체집회를 책임 맡고 진행한 오윤태 목사(Soon Movement 대표)는 "우리 2세대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놓으신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계신데 이들을 잘 지도하고 훈련할 때 이들은 이 땅에 그리고 세계선교에 소중한 일꾼들로 사용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2세대들을 향한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캠퍼스선교사로 약20 여명이 헌신했고, 2020년 여름단기선교에도 약 150여명이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며 계속해서 캠퍼스에서 기도운동과 성경공부 운동에 헌신하기로 작정했다. Higher Calling은 매년 열리는 집회로 올해는 남가주, 뉴욕(1월 7일-10일 2020), 애틀랜타, 하와이(3월 16일-18일) 등에서 집회를 열고 있으며, 2021년에는 Youth들의 컨퍼런스도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제공 KCCUSA)



제17회 제117주년 미주한인 이민 만년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우측아래 타원안은 제117주년 미주한인 이민 축하행사 때 한인대표들과 흑인, 히스패닉, 방글라데시 및 소수민족 대표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미국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한인사회'

제17회 제117주년 미주한인 이민 감사예배 및 디너행사

제17회 제117주년 미주한인 이민 감사예배 및 디너행사가 12일 오후 3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와 밀레니엄 빌트모아 호텔에서 열렸다.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린 감사예배는 김경일 목사 사회로 시작, 최순길 목사(평창미주주원 공동회장)가 대표기도 했으며 은혜한인교회 장로성가단이 찬양했다.

이어서 한기홍 목사가 '미국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한인사회가 되자'(마5:13-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기홍 목사는 "미주한인의 날 제정은 큰 의미가 있다. 270여 민족이 미국에 사는데 자체 기념일을 갖는 것은 유일하게 한인커뮤니티뿐이다. 미국 건국에 큰 역할을 한 청교도들이 미국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교회를 지은 것이다. 학교를 세우고 가정에서 성경보고 예배드

성경중심으로 법과 생활양식에 큰 역할을 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거주한지 400여년이 됐다. 한인들도 청교도들과 같은 102명이 미국에 왔다. 교회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 117주년이 됐는데 오늘날 한인사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해주셨다. 북미주에 4500여 교회가 세워졌다. 열심히 모여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민족은 찾아보기 힘들다. 각계각층 전문인 기업가 정치인들이 빛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한인사회는 미국 속 작은 커뮤니티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다면 미국의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는 (16면으로 계속)



웨이스신학교 동문회 신년감사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in Christ '믿음' 가지라"

웨이스신학교 동문회 신년감사 예배

웨이스신학교 동문회 신년 감사 예배가 1월 11일 정오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렸다. 동문회장 전희수 목사(뉴욕 기쁨과영광교회)는 "졸업한지 30년이 됐지만 동문들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라며 "학교는 휴교지만 총장님이 계셔서 만날 때마다 신학강좌를 해주시고 재정적 지원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특히 여성목회자들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갈2:15-16)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실체를 강조했다. 즉 본문에서 Faith in Christ와 Faith of Christ의 차이를 설명하며 "우리의 (열심인) 믿음으로 성화되고 칭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역설했다.

김기호 목사(뉴욕주양교회)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기도 박진하 목사(뉴욕침례교회), 특수 뉴욕오카리나선교단, 말씀 윤세웅 목사(웨이스신학교 총장, KCBN사장), 인사말 전희수 목사, 광고 한기홍 목사(뉴욕할렐루야교회), 축도 라홍채 목사(제자들교회) 순서로 진행됐다. 윤세웅 목사는 "믿음이란?"(

윤 목사는 또한 성경이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6 일간의 천지창조,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기적과 죽음, 부활, 재림 등에 대해 믿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런 교육을 받은 웨이스신학교 동문들은 계속 (영어)성경 읽기를 권했다. 예배 후 동문들은 윤세웅 총장이 마련한 오찬과 선물을 나누며 친교를 다졌다. (유원정 기자)

'목사의 정체성 갖고 사명을 길 가라'

예장백석 미주동부노회 김순배 목사 안수식

예장백석 미주동부노회가 지난 1월 12일 저녁 김순배 목사 안수식을 가졌다. 노회장 주효식 목사는 "Why?"(사53:1-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사역을 하다보면 '왜'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다. 오늘 왜 목사임직을 받으려 하는가? 이 질문은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이라며 "본문의 주인공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이 땅에 오셔서 찢림과 채찍과 고난을 당하셨는데 왜 그러셨는가? 바로 우리의 니움과 평

화를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명예욕과 세상영광 버리고 맡겨진 양떼들의 허물과 죄악을 내가 찢림과 채찍을 맞고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사명을 갖고 목사의 길을 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예배는 함성은 목사 인도로 기도 장규준 목사, 설교 주효식 목사. 임직식은 부노회장 김충전 목사 사회로 임직자 소개, 서약, 안수기도, 악수례, 성의착의, 공포, 임직패 증정, 권면(한준희 목사), 축사(송원섭 목사),



예장백석 미주동부노회 목사안수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축가(안경순 목사), 답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순배 목사는 답사에서 "소명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청지기로서 사명과 종의 도를 따르며 죽기까지 신실하게 사명을 다하겠다"며 노회와 가족들에게 감사했다. 김순배 목사는 이화여대와

동부교계 게시판



동부개혁장신 선교어학원 특강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 부설 선교어학원 특강이 2월 4일부터 12주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오후 6시에 진행된다. 강사는 김경래 교수로 이번 강의는 '중국어 마태복음 강해'다.

▲문의: (718)637-1470, 463-7163

뉴저지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장동신 목사)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이 1월 28일(화) 오후 6시 30분 초대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01)787-1422

복음뉴스 창간 3주년 감사예배

인터넷 기독교 복음뉴스(대표 김동욱 목사) 창간 3주년 감사예배가 2월 2일(주일) 오후 5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516)241-6024



KPCA 뉴욕노회 2020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회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하늘의 복 주실 것

KPCA 뉴욕노회 2020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

해외한인장로회(KPCA) 뉴욕노회 2020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가 지난 1월 12일 저녁 5시30분 뉴욕만민교회(담임 주영광 목사)에서 열렸다. 만찬을 한 후 시작된 예배는 노회장 허용구 목사 인도로 지체홍 장로(부노회장, 뉴욕에일교회)의 기도 후 임원들의 특별찬양이 있었으며 설교는 김종훈 목사(전 총회장, 뉴욕에일교회 담임)가 "기억하시는 하나님"(창8:1-5)이란 제목으로 전했다. 김종훈 목사는 "2020년 우리에게 당면한 이민교회의 어려움과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과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것"이라며 "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축복했다. 김 목사는 설교 마무리에 CCM '내 이름 아시죠'를 함께 찬양하며 통성기도를 인도했다. 예배는 신상필 목사(전 노회장, 뉴욕참총교회 담임) 축도로 마쳤다. 이날 모아진 헌금은 미자립 교회 후원을 위해 사용한다. 3부 친교는 최호섭 목사와 주영광 목사 사회로 찬양과 율놀이, 빙고게임 등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2020년 신년하례 3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함께 하는 교협" 더 풍성해진 기도회...

뉴욕교협, 2020년 신년하례 3차 준비기도회

뉴욕교협이 1월 16일 2020년 신년하례 감사예배를 앞두고 지난 9일 3차 준비기도회를 가졌다. 회장 양민석 목사는 "준비기도회가 갈수록 더 풍성한 기도회가 돼서 감사하다"며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윤오성 목사 인도로 안경순 목사의 찬양인도 후 기도 차철회 목사, 성경봉독 송운섭 장로, 설교 김홍석 목사, 합심기도 마바울 목사(2020신년감사예배와 하례만찬을 위해) 김신영 목사(미국, 한국, 북한을 위해) 심화자 목사(뉴욕교협, 목사회, 이사회, 평신도지도자를 위해) 이재봉 목사(차세대와 청소년 1.5세, 2세를 위해), 축도 김원기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성경회장 김홍석 목사(늘기쁜교회 담임)는 "함께 하는 교협"(고전1:1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고린도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고린도에 와서 세운

교회인데 파벌이 생겼다"며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본 문은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첫째, 같은 말을 하라 둘째, 같은 마음을 가지라 셋째, 같은 뜻을 가지라"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때는 내 생명을 내놓고 주의 일을 할 때"라고 말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연합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기를 기도하자"고 말했다. 조원태 목사는 "2020신년하례만찬도 이번 교협 표어 Let's go together에 맞춰 준비했다"며 "영역사역 부교역자와 목회자부부 초청, 소외된 이웃 섬기는 기관장들을 초청하고 리셉션(오후 6시20분부터), 영상축사, 어린이합창단 및 유망음악인 초청" 등에 대해 소개하고 적극적인 후원과 기도를 당부했다. (유원정 기자)

2020년 주신 하나님께 감사!

KAPC 뉴욕일원 각 노회 신년하례 예배

뉴욕일원의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양수철 목사) 노회들의 신년하례 예배가 1월 5일 뉴욕남노회를 시작으로 개최됐다. 뉴욕남노회는 5일 오후 5시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뉴욕노회는 6일 오전 11시 뉴욕새생명장로교회(담임 허윤준 목사)에서, 뉴욕동노회는 7일 오전 11시 뉴욕참교회(담임 문덕연 목사)에서, 뉴욕서노회는 13일 오후 5시30분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렸으며, 가든노회는 20일 뉴저지성도교회(담임 허상희 목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제 44회 KAPC 총회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캔쿤에서 열린다. 이를 위해 각 노회들은 미리 등록해줄 것과 기도를 당부했다.

뉴욕남노회

노회장 조덕남 목사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조성희 목사가 기도하고 전 총회장 김재열 목사가 사무엘상 17:41-49을 본문으로 "골리앗(두려움)을 쓰러뜨려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재열 목사는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 건축하며 일어난 일들을 간증하며 "삶에서 만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두려움의 근원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떠날 때다. 두려움의 대명사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비결을 찾아보면 첫째, 도전하라. 17살 다윗은 왕에게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우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둘째, 확신을 갖는 다윗의 용기다. 주의 종이라는 정체성의 확신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우리 삶은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달라져야 한다. 셋째, 달란트를 개발했다. 양들을 돌보며 목동의 필수품인 물뿔을 가지고 다니며 맹수가 나타나면 쫓아냈다. 언제든지 행할 수 있는 자기만의 달란트를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눕힌 것이다. 넷째,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다윗의 경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영에 불들렸기 때문이다. 2020년 한해 살면서 두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관목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는 안 된다. 늘 여호와와 영에 풍성하게 붙잡혀서 두려움과 골리앗의 공포 앞에서 백전백승하는 이 시대의 다윗들이 되라"고 강조했다. 말씀을 듣고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권영국 목사 축도로 마쳤다.

예배 후에는 센트럴교회에서 준비한 떡국 등 음식을 들며 새해 덕담을 하며 친교했다. 이어 신년 율놀이를 하며 준비한 선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뉴욕노회

방정훈 목사의 찬양인도가 있는 후 부노회장 김성국 목사 인도로 기도 이윤석 목사, 성경봉독 정인수 목사, 말씀 흥춘식 목사, 광고 허윤준 목사, 합심기도, 축도 손한권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노회장 흥춘식 목사는 "준비된 택한 그릇"(행9:15-16)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모든 목회사역의 시작이며 고백"이라며 "2020년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역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흥 목사는 "사도 바울의 서신은 실생활에 적용이 된다.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던 사도바울의 사역현장은 아름다웠다.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 것 없으나 성령의 열매가 풍성했다.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게 된다. 세상이 무섭게 변해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이 뜻임을 믿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순수하게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작은 불씨가 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

했다. 합심기도는 김성국 목사 인도로 첫째, 뉴욕노회가 기도하는 노회로 말씀의 불씨를 일으키자 둘째, 한국과 미국 전 세계를 위해 셋째, 원로 장영준 목사와 김혜천 목사의 건강을 위해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문종은 목사가 마무리 기도했다. 예배 후에는 새생명장로교회(담임 허윤준 목사)에서 준비한 오찬을 하고 율놀이 등 게임을 하며 친교시간을 가졌다.

뉴욕동노회

문덕연 목사 인도로 기도 황상하 목사, 성경봉독 조성득 목사, 특송 임원일동, 설교 김남수 목사, 신년합심기도 (1)뉴욕동노회와 지교회를 위해(장기수 목사) (2)KAPC와 제 44회 총회를 위해(박희근 목사) (3)미국을 위해(위정자, 교회, 신학교, 미국사회)(김동수 목사) (4)대한민국을 위해(이규섭 목사), 신년덕담 조문휘 목사, 광고 신철용 목사, 축도 조영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남수 목사는 "교회와 우리들"(속4:1-9)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기라는 내용"이라며 "교회는 신비하고 고귀하고 영광스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간의 수단이나 지혜, 권세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목회를 할수록 느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한다. 시대가 변해도 근본적인 성경진리는 영원불변하다. 본문 7절에 보면 교회 앞에는 큰 산(문제)이 많다. 그러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듯이 말씀과 기도,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문제를 이긴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목회자는 물론 교우들이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2020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내주실 것이다.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속히, 신실하게'라는 말대로 우리 힘을 빼고 겸손과 앞드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총회장 조문휘 목사는 "2020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고 "우리 본연의 위치에서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즉 "부름 받은 말씀 사역자에게 기본에 충실하는 것은 사생결단의 기도"라고 강조하고 "우리가 먼저 ①회개하는 일에 앞장서고 ②말씀에 전무하기 위해 성경읽기 ③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부유함이 있기를 바란다"고 덕담했다. 조 목사는 또 5월 총회를 호스트하는 노회로 첫째,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총회되도록 기도해 달라 둘째, 준비위원회와 노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협력하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예배 후 참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하고 친교시간을 가졌다.

뉴욕서노회

임일송 목사 찬양인도 후 박



뉴욕남노회 신년하례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노회 신년하례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동노회 신년하례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서노회 신년하례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종윤 목사 인도로 기도 오영상 목사, 말씀 임동열 목사, 축도 강기봉 목사, 광고 오영상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노회장 임동열 목사는 "사랑으로! 순종으로!"(창22:11-18)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순종으로 바친다. 사랑으로 순종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왜 사랑으로 훈련시키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결단했지만 호언장담이 물거품이 된 것을 본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으로 세우시고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고 말했다.

임 목사는 "하나님은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다. 하나님도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따라서 우리는 특히 주의 종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남달라야 한다.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그러면 왜 사랑해야 하는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목사가 먼저 순종을 보이고 교인들을 가르쳐야 한다"며 "사랑으로 순종하면 아름답다. 사랑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기적이 일어난다. 사랑으로 순종하면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주신다. 우리 모두 이 복을 누리자"고 전했다.

예배 후에는 조부호 목사의 만찬기도 후 이종태 목사 사회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2월 3일(월)부터 5일(수)까지 총회주관 동부지역 2020년 목사장로기도회가 매릴랜드(Sandy Cove Ministries)에서 열린다고 광고했다. 이번 기도회는 필라노회가 주최하며 회비는 50달러다.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 중국어예배부 5주년 기념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민족 뛰어넘어 복음전파...

퀸즈장로교회 중국어예배부 5주년 기념예배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중국어 예배부(첸위지 목사)가 설립 5주년을 맞아 1월 5일 오후 4시 기념예배를 드렸다. 김성국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이민자의 삶은 전쟁의 삶이다. 너를 이겨야 내가 산다. 다른 민족을 이겨야 내 민족이 산다. 그러나 후러심에 변화가 왔다. 다른 민족끼리 서로 돕고 사랑하는 변화다. 복음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나라를 만든 첸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 중국어예배부가 1천명, 5천명, 1만명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며 중국어예배부 교인들과 손을 잡고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를 합

창해 은혜와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념예배는 무용단의 무용(나를 인도하소서), He Jin Chen 집사의 예배선언, Da Chang전도사의 찬송(기뻐 경배하세), 정성호 장로의 기도, De Yin Luan 집사의 성경봉독, 영상부의 5주년 기념 비디오 상영, 첸위지 목사의 말씀('기쁨의 날', 시126:1-6), 무용단의 무용(일생에 가장 아름다운 축복), 김도현 목사의 축사, 글로리아시어즈의 특송, 송요한 목사의 축사, 아동부 특송(성경삼자경), 김성국 목사의 격려사, 찬양대 찬양, 김성국 목사 축도와 아동부의 꽃다발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리: 유원정 기자)

“주님 사랑과 복음 전하는 교협”

OC교협회장 이취임식 및 신년하례식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OC교협)는 지난 6일 미주비전교회(담임 이서 목사)에서 제29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가졌다.

29대 회장 박상목 목사는 “시대가 참으로 어렵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성경에 의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OC교협의 위치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회가 서로 연합해 힘을 합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장 박 목사는 “OC교협은 성경 읽기운동에 앞장서고 이 민 교회들이 선교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영적 성장 집회를 통해 교계와 목회자들이 협력해 이민자커뮤니티를 섬겨나가도록 하겠다. 따라서 OC교협이 먼저 신뢰를 얻



OC교협회장 이취임식 및 신년하례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어야만 한다.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만 한다. 제가 섬기는 동안 이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길 소망한다. 기도하는 교협, 사랑하는 교협,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교협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뒷받침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부회장 조형수 목사(풍성한교회 담임) 사회로 진행된 이·취임식에서 김근수 목사(OC목사회 회장)가 대표기도를, 민 김 집사(OC기독교전도회연합

회 회장)가 성경봉독(행16:6-10)을, 아리랑합창단(단장 김경자)이 특송한 후 고인호 목사(전 KWMC공동회장)가 ‘하나님이 이민교회에 두신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이임회장 이서 목사가 이임사를, 신임회장 박상목 목사가 취임사를 했으며 이임회장과 신임회장, 이임이사장, 이임 후원이사에게 공로패를 증정하고 신임 후원이사장, 신임

이사에게 추대증서를 증정했다. 이어서 신임이사장 이호우 목사가 이사장 인사와 이사소개를, 신임회장 박상목 목사가 후원이사장과 후원이사를 소개했다. 그리고 김종대 장로(OC한인회장), 영진 전 거주하원의원, 최석호 의원, 한기홍 목사, 신원규 목사가 축사했으며 김용철 서기가 임원소개, 이수정 집사(캄보달 단장겸 지휘자)가 특송하고 증경회장 윤성원 목사가 축도했다.

이취임식을 마치고 열린 신년하례식은 윤우경 집사(OC평신도연합회 이사장) 사회로 시작, 개회사 및 국민의례, 박상목 회장 신년사, OC교협 임원진의 축가, 케익커팅 및 결의시간으로 이어졌다.

OC교협은 2020년도 사업과 관련 △지역단체장 초청기도회 △삼일절 기념식 △성경읽기 세미나 △부활절 연합예배 △사모 Blessing Night △6.25 상기 기념식 △선교대회 △광복절 기념식 △영적 대각성 집회 등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어?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일독학교

샘터성경사역원 LA지부 하성원은 생장점이 터지는 신약일독학교를 오는 2월 5일부터 4월 29일(4월15일 휴강)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30분과 저녁 7시에 실시한다. 강사는 김덕수 목사, 김소연 사모, 임다나 권사, 정인주 집사이며 수강료는 50달러(간식비, 수업료 포함)이다. 교재는 성경책, 신약워크북(현장구입 가능), 신약네비게이션.

▲문의: (213)500-2948

한부모가정 자녀위한 특별프로그램

새가정모임(Divorce Recovery Ministry 대표 유호정 목사)은 한부모가정 자녀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25일(토) 오전 8시에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5-11학년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견학 프로그램으로 토요일 오전 8시 LA비전교회(담임 김대준 목사)에서 출발하게 된다. 참석 인원은 선착순 12명이며 회비는 1인당 30달러다.

▲문의: (213)386-9191, (949)627-1452

칼그랜트 신청 및 안내 세미나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는 칼그랜트 신청 및 안내 세미나를 27일(월), 오후 2시 30분에 본교 도서관 GL2 강의실(201 S. BASQUE AVE)에서 갖는다.

▲문의: (714)525-0088

‘시선’ 후원인의 밤

무대예술인 그룹 시선(대표 클라라킴)은 지난 2019년 뮤지컬 도산 제작 후원자들을 위해 8월21-23일 광복 75주년 기념 ‘뮤지컬 도산’ 감사공연을 갖는다. 이에 후원인들과 함께 ‘시선 후원인의 밤’을 19일(주일) 오후 5시 용수산(950S. Vermont Ave)에서 갖는다. 디너 티켓은 1인당 100달러이며 참석하고자 하는 자들은 15일(수)까지 예약해야 한다.

▲문의: (213)500-5824. musicaldosan@gmail.com



남가주 예비역기독교인회 신년 인사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남가주 예비역기독교인회 신년 인사 모임

남가주 한국 예비역기독교인회(KVMCF SC)는 지난 11시에 LA한인타운 말씀새로운교회에서 1월 정기 모임 ‘신년하례식 연임 임원인사 및 호국기도회’를 했다.

1부 예배에서는 고남철 목사의 사회로 분회 기도문을 다 함께 하고 오재식 회계 기도, 성경 봉독(벧전5:8-9) 백소피아 총무, 주사랑선교회가 울동과 찬양한 뒤 이정현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이 “3C 3P 전략” 제목으로 “변화, 도전, 협력하고 기도, 열정, 권능의 전략” 말씀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임화자 전도사가 특송, 안신기 목사가 봉헌기도를 했으며 최훈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순서는 김회창 회장의

사회로 임원 인사 및 호국기도회를 열고 구국기도에 최정학 부회장이, 국가군안보 기도차기학 부회장이 했으며 특별히 오렌지카운티의 슈퍼바이저 스티브 박 의원이 김회창 회장에게 연임 축하하는 리더십 축하패를 전달했다.

KCBC 대표 한기형 목사의 격려사, KWMC 공동회장 총신대남가주동문회장 김경일 목사가 축사했으며 유당열 목사의 감사기도로 오찬을 나누면서 40여명이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분회는 매월 둘째 토요일 11시에 LA 말씀새로운교회(2975 Wilshire Blvd, #415, LA)에서 모이고 있다.

▲문의: (213)268-9367 (기사제공: 남가주예비역기독교인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020 CMF선교원 신년 하례예배

CMF 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은 지난 4일 정오 CMF선교원 회관에서 ‘2020 CMF 선교원 신년 하례예배’를 목회자 선교사 등 100여명이 모여 예배와 신년하례 행사를 가졌다.

김철민 대표는 인사말에서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며 “금년 표어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은 자로서 사랑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김철민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김인철 목사(오렌지나안장로교회)가 기도하고, 권혜연 선교사가 특송을, 엄영민 목사(전 KAPC 총회장)가 설교했다.

김 목사는 ‘사랑이 넘치는 한해’(마22:37-40)라는 제목으로 “CMF선교회의 금년도 표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처럼 오늘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표어가 되기를 바라면서 남은 생애 저와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주님의 사랑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며 “금년 표어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은 자로서 사랑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김철민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김인철 목사(오렌지나안장로교회)가 기도하고, 권혜연 선교사가 특송을, 엄영민 목사(전 KAPC 총회장)가 설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남가주목사회 신년하례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코람데오 신앙적 가치, 삶에 적용”

남가주목사회 신년하례 및 조찬기도회

남가주목사회(회장 이정현 목사) 2020년 신년하례 및 조찬기도회가 5일 오전 8시 풍성한교회(담임 박호우 목사)에서 열렸다.

윤건상 목사 인도로 시작된 조찬기도회는 이정현 목사가 환영사 및 신년인사, 주재임 목사 대표기도, 박영섭 목사 성경봉독, 윤에스터 목사 특별찬송으로 이어졌다. 이날 김관진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마7:20-2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김관진 목사는 “많은 일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 못 받는다면 허망하게 된다”며 “하나님 말씀 반석위에 굳게 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날마다 우리마음 새롭게 하여 변화 받아야 한다. 코람데오 신앙적 가치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불법을 행한 자라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치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특별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나정기 목사가 ‘2020년도 남가주목사회를 위하여’ △박정희 목사가 ‘한인교회를 위하여’ △김용남 목사가 ‘3.1절 행사를 위하여’ △박호우 목사가 ‘미국과 우리조국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를 인도했으며 이태환 목사(원로분과위원장) 축도로 마쳤다.

이어 열린 2부 신년하례회는 김엘리아 목사 사회로 시작, 2020년 사업계획 보고 및 찬양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사랑으로 목양... 예수님의 도구 되겠다”

새한교회 노영호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

새한교회는 12일 오후 3시 설립 42주년 기념주일 감사와 함께 노영호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송경석 목사 인도로 기도 김영호 장로, 설교 강진웅 목사(해외한인 장로회 서노회 노회장), 김인식 목사(웨스트힐장로교회 원로) 축도로 진행된 감사예배와 취임예식은 성전을 가득 채운 성도들과 축하객들의 기도 속에 은혜롭게 진행됐다.

말씀을 전한 강진웅 목사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막2:21-22)라는 제목으로 “오래된 가족부대는 팽창돼 새 포도주를 담으면 터질 수 있다. 새로운 담임목사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브레이크를 걸면 새 일을 할 수 없다. 융통성을 가지고 새로운 목사와 협력해 새로운 시도를 맡겨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 바란다. 새 목사님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가운데 기쁨으로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강진웅 목사의 집례로 진행된 취임예식을 통해 노영호 목사가 새한교회 담임목사임을 선포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 담임)는 “목사님과 새한교회가 마치 결혼한 것과 같다. 이제 새로운 생

명을 잉태한 교회, 남가주와 세계연방에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웨스트힐장로교회 김인식 원로목사는 “이민목회의 심계명은 모두 ‘참으라’고 한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줄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데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고 이 새한교회에 기도로 뿌리 내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사랑실현의 장이 되도록 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기 바란다”고 권면했다.

노영호 담임목사는 “그동안 부목사로 사역하며 많은 것들을 배웠다. 이제 담임목회를 시작하며 꿈꾸던 목회를 시작한다. 이 교회 담임목사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노영호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양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생명을 있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도를 부탁한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나성영락교회 교역자들의 특별찬양은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노영호 담임목사는 나성영락교회 교구총괄 수석부목사로 사역했으며 가족으로는 김정은 사모와 우영, 현빈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이성자 기자)



GMAN UNIVERSITY 사역 위한 모임에서 최찬영 선교사가 격려사를 하고있다



CMF 선교회 신년하례예배

황금기선교사운동 실천 조직 갖췄다

GMAN UNIVERSITY 사역 위한 모임 가져

은퇴이후의 시간을 전문직 또는 기술 은사를 활용해 선교할 수 있는 동력 GMAN UNIVERSITY 첫 번째 학기가 시작된다. 이를 위한 모임이 11일 오후 2시 GMAN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김정환 선교사 사회로 열린 모임에서 최찬영 선교사는 “세상 남은 시간을 선교로 보낼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며 “자녀들이 다 성장해 자녀격에서 벗어난 자들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며 제2의 삶을 사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을 하는 것은 고귀한 것”이라 말했다.

최 선교사는 “웨스트민스터 소외리문답에 나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조직까지 갖춰 하게 됐다. 우리운동이 전 세계 한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황금기선교사운동을 할 때 천국이 더 가까워오

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정일 선교사(키르키르스탄), 홍지우 선교사(이스라엘), 이경승 선교사(파라과이), 김한나 선교사(중국), 윤상혁 선교사(에티오피아), 하대식, 정순연 선교사(요르단)가 선교사역을 소개했다.

GMAN UNIVERSITY는 2019년 7월 16일 가주교육국에 인가 신청했으며 수개월 만에 가주교육국 인가학교로 승인됐다.

학사와 석사로 운영되며 학사는 120학점, 석사 6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총 학점 중 반은 전공, 받은 신학관련 학점을 받게 된다. 2020학년도 첫 번째 학기는 1월 15일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되며 유호정 교수가 바이블 ESL I, 조종익 교수가 ‘성경구속역사학’, 김정환 교수가 ‘황금기평신도 전문인 선교학’ 과목을 가르친다.

(박준호 기자)

달라진 교단 신년하례회...핵심사역 전면에

교단 지향점 명확히 하고 실천하는 장으로

각 교단 신년하례회가 달라지고 있다. 교단의 지향점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내실 있는 행사로 바뀌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중준 목사)은 새해 역점 사업인 '영성 회복'과 '다음세대 부흥'을 선포하는 것으로 사역에 시동을 걸었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총회회관에서 7일 열린 '2020년 신년 감사예배'는 전통적 방식을 탈피해 새해 교단을 이끌어 갈 핵심 운동본부들 출발선에 세우는 것으로 시작했다.

예장합동은 이날 행사에서 1부 예배와 2부 하례회에 이

은 3부 발대식에 무게를 실었다. 발대식에선 총회영성회복 기도운동본부(본부장 장봉생 목사)와 총회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본부장 권순웅 목사)를 집중 조명했다.

김중준 총회장은 "예장합동은 '회복'을 키워드로 제104회기를 열었다"며 "영성회복기도운동본부와 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가 회복을 위한 필수요소인 영적 각성, 다음세대전문사역을 맡아 교단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봉생 권순웅 본부장에게 깃발을 수여했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에는 '총회와 노회, 교

회의 부흥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며 헌신할 것'이란 다짐이 담겼다.

영성회복기도운동본부는 오는 13-17일 경기도 의정부 광명교회(최남수 목사)에서 전국 직분자 금식기도회를 연다. 매달 한 차례 전국교회에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기도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세대운동본부는 11일 서울 중현교회(한규삼 목사), 18일 대전중앙교회(고석찬 목사)에서 전국교사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어 거점교회를 활용한 다음세대 교육프로그램 확산, 주중 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신년하례예배와 실행위원회를 갖고 새해 사역을 시작했다. 이영훈 대표총회장은 '네 장막터를 넓히라'(사 54:1-3)를 제목으로 설교하고 "만군의 하나님만 믿고 가자.

성령충만의 장막터를 넓혀 절대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총회장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처럼 순복음의 이름은 가졌으나 영적으로 죽은 교회는 없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성령의 권능으로 폭발적 부흥 시대를 열어가자. 절망에 처한 세상을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하자"고 권면했다.

분열과 대립, 경제 위기, 외교 고립에 처한 한국사회 재건에 앞장서자는 독려도 이어졌다. 이 대표총회장은 "동성결혼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한국을 망치기 때문에 절대 타협할 수 없다"며 "어떤 것도 북한을 변화시키진 못한다. 공산주의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기독교다. 복음으로 남북통일시대를 이끄자"고 덧붙였다.

신년하례예배에서는 국가 안정과 평화,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교단 부흥과 교회를 위한 특별기도가 드려졌다. 미자립교회를 위한 지원금도 전달됐다.

"정부는 헌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지..."

한복협 시국선언문 발표, 정부 갈등 분열 책임 촉구

한국복음주의협의회(한복협·회장 이정익 목사)가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중심 가치에 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음을 국민 앞에 공표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10일 오전 서울 종교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한복협은 "정부가 광화문과 서초동에 모인 국민의 총정 어린 요청을 하나로 묶어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더 부강한 나라로 발전시키는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선언문은 유관지 북한교회 연구원장과 허문영 평화한국 대표,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가 낭독했다. 100여명의 참석자들은 선언문이 낭독되는 중간에 '아멘'과 박수로 동의의 뜻을 표했다.

한복협은 선언문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심각하게 분열돼 한반도 남쪽에 마치 두 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대립하고 있다"면서 "해방 직후 남북 분열에 이은 심각한 남북 분열로 많은 사람을 염려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우려했다. 선언문에는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으로 돌아가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면서 "여기에 기초해 보

수든 진보든 어떤 종류의 정치적 독재에도 반대하며 경제적 독점을 정당화하는 특권 재벌이나 귀족 노조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남북통일은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 아래서 진행돼야 한다"면서 "빠른 통일" 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바른 통일'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미국 및 자유 세계와의 연대를 강화하라"면서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이 종교 자유를 비롯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촉구"하고 국제사회도 남북이 자유와 인권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데 노력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한복협은 고 한경직 정진경 김준곤 임옥 목사 등 한국교회 원로들이 주축이 돼 복음주의 신앙에 따른 연합운동 확산을 위해 1981년 설립됐다. 박종화(경동교회 원로) 최성규(인선순복음교회 원로) 김명혁(강변교회 원로)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오정호(대전세로남교회) 임석순(한국중앙교회) 최이우(종교교회) 이재훈(온누리교회) 고명진(수원중앙침례교회) 정성진(거룩한빛광성교회 은퇴) 목사 등이 한복협을 이끌고 있다.

전세계 파송 한국선교사 2만8039명

KWMA, 선교사 파송현황 발표...증가세 주춤

전 세계에 파송된 한국인 선교사가 지난해 말 현재 2만 8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증가세는 이어졌지만, 증가폭은 5년 전보다 줄었다. 국내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선교사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허수를 없앤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KWMA)는 14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해외선교사 파송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현재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 등 273개 기관이 171개국에 2만8039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2018년 2만7993명보다 46명 늘어난 것이다. 2016년 파송선교사는 2만7205명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2017년에는 231명 증가한 2만7436명이었던 2018년에 2만7993명으로 집계돼 557명 증가했다.

KWMA 측은 "2016년 이후 증가 추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과거 한 해에 500-1000명씩 증가하던 것에 비하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엇갈렸다. A씨는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추가 선교사 파송도 둔화 내지 정체되고 있다"며 "그나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선교사 통계가 체계적이지 못해서 발생한 '허수'를 정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B목사는 "예전엔 기관들이 단독 파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었는데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은 뒤 여러 단체가 쪼개기 후일 형태로 파송하는 형태가 확산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이중, 삼중, 사중으로 중복 집계되는 선교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KWMA도 선교사 통계에 '허수'가 많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통계의 정확도에 공을 들여왔다. 이번 발표는 200여개 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11월엔 KWMA와 한국

2019 한국 기독교계 10대 뉴스

(1)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재조명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해였다. 100년 전 기독교인은 국민의 2%도 안 될 정도로 소수였으나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을 배출하고 전국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자유 평등 정의를 외쳤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근대로 거듭나는 중생의 사건이었고, 지난 100년은 기독교가 한민족에게 민족종교로 우뚝 서는 과정이었다.

(2) 교회로 변진 이념 갈등...전광훈 논란도

올해 대한민국은 분열과 갈등의 시간을 보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이슈가 양쪽으로 갈렸다. 갈등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극대화됐다. 그의 사퇴까지 35일간 이념·진영 간 세 대결로 국론이 분열됐다.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일부 교회와 신자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현 정부를 향해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 정치적·이념적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3) 한·일 교회, 화해의 가교 역할 모색

일본이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뒤 한일 관계는 급속히 경색됐다. 한일 교회는 성경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화해를 모색했다. 한국 기독교단체는 도쿄에서 일본 교회와 공동시국기도회를 가졌고 일본의 기독교단체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교회와 힘을 합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사역 중인 한국인 선교사들은 민간 외교관으로서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다.

(4) 예장통합, 명성교회 세습 사실상 허용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은 지난 9월 총회에서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 논란에 대한 수습안을 통과시켰다. 수습안은 총회의 권위를 명성교회가 받아들여 아들 김하나 목사의 설교 행정 등 사역을 중단시키고 서울 동남노회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2021년 이후 김 목사의 재청빙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요약된다. 예장통합의 일부 교회는 총회의 결정이 초법적이라며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5) 낙태죄 위헌 결정에 교계 반발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교계에선 현재의 결정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역행하며 사실상 태아살해를 정당화하는 반생명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교계 단체는 2020년 12월까지 낙태죄 대체법안을 만들 때 낙태 숙려기간과 상담제도를 신설하고 낙태 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6) 반동성애운동 확산... 법 개정 등 추진

안상수 의원 등 44명의 국회의원이 동성애와 제3의 성(性)을 뜻하는 성적지향(性的志向) 문구를 삭제하고 성별을 남녀로만 한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건강한성기독교인물민연합 등은 지난 7월 공포된 경기도 성평등조례를 폐기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은 동성애 옹호 활동에 앞장선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12명의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7) 중국·인도 등서 한국선교사 잇단 추방

중국과 인도 등에서 한국 선교사들의 추방이 이어졌다. 중국 정부는 기독교인 급증을 위기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 가정교회는 폐쇄되고 있으며 외국 선교사 추방도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인도에서도 강경 힌두 정권 하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 500여명의 한국인 선교사가 인도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선교사들의 전략적 재배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8) 경색된 남북관계 속 교계 평화 촉구

지난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미 및 남북 관계가 모두 얼어붙었다. 6월 남·북·미 정상회담 회동과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도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평화를 촉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더 뜨거웠다. 각 교단과 교회, 선교단체에서는 꾸준히 통일 선교대회, 평화기도회 등을 열며 통일 선교를 준비했다.

(9) 이단 사이버, 교회·캠퍼스서 활개

이단·사이버 집단은 올해도 어김없이 국내 교계와 대학 캠퍼스, 해외 선교지 곳곳에서 성도들의 연약한 틈을 파고들려 했다. 천안과 포항 등의 교계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등 이단들의 포교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대학가에선 설문조사 심리상담 토의공부 등을 미끼로 학생들을 미혹하는 이단·사이버로 인해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10) 사랑의 교회 '7년 내홍' 극적 화해

폭로와 소송, 상호 비난으로 7년여 동안 갈등해왔던 서울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대표 김두중 장로)는 성탄절을 앞둔 지난 23일 극적 화해에 합의했다. 각종 소송 취하, 교인 권징 해법, 공동체 한 협력 등 합의각서에 명시된 내용은 새롭게 출발할 사랑의교회 공동체를 기대하게 했다.

선교연구원 협약을 맺고 선교사 통계의 정확도와 깊이를 더하기로 했다.

교단 파송 선교사의 경우 지난해에도 꾸준히 증가해 전체 파송 선교사의 45%를 차지했다. 1000명 넘는 선교사를 파송한 상위 3개 교단에선 선교사 파송을 꾸준히 늘려갔다. 선교사 2명 중 1명은 아시아권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최다 파송국가는 선교가 자유롭지 못한 A국이었다고 미국 일본 필리핀 태국 등이 뒤를 이었다.

선교사 가운데 1만4526명(복수

응답)은 주요 사역으로 교회개혁을 첫손에 꼽았다. KWMA는 목회자 배경의 선교사가 많기 때문으로 봤다. 다중 사역이 많은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적 특성에 따라 교회개혁을 기본으로 '현지인 선교훈련 및 동원' '복지·개발' '캠퍼스 선교' 사역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2018년부터 항목에 들어간 선교사 자녀 부분에선 20세 이상 자녀가 7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교사 자녀들은 대부분 다문화 환경에서 성장해 다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한교총, 서명지 110만여장 청와대 전달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목사)이 6일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종교자유를 침해할 개연성이 높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서명지 110만여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서명지는 한교총 주요 회원 교단이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전개한 서명운동의 결과물이다. 총 110만 379명이 동참했다. 주요 내용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비판을 차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및 동성혼 합법화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법 내 성적지향 삭제 등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독소조항을 삭제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한교총은 서명지를 복사해 축쇄판 7권으로 제작했다. 서명지는 청와대를 통해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되며, 국회에는 오는 4월 총선 후 전달할 예정이다.

"앞으로 10년 '복음통일' 판가를 날 것"

제23회 북한구원 금식성회 2000여명 참석

"북한에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복녜땅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8일 경기도 화성 수원원들 산수양관에서 열린 제23회 북한구원 금식성회'는 2000여명의 기도 소리로 가득했다. 금식성회는 2009년부터 매년 북한 구원을 위해 열리는 국내 유일의 집회다.

참석자들은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7끼를 금식하며 19개 강의를 들으며 복음통일을 간구했다. 이규 서울 신촌아름다운교회 목사는 '통일한국 10년의 섬김' 강의에서 "일체의 극심한 탄압을 받던 1945년 8월 한국 국민은 누구도 광복을 예상치 못했다"면서 "70년 넘게 주체사상 아래 신음하는 북한 주민도 마찬가지다.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앞으로 10년 안에 두 번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를 치른다"면서 "이 기간은 미래 대한민국이 복음통일과 일치, 아니면 지금처럼 분단이 고착화될지 판가를 내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가 공격을 받고 신앙의 자유마저 침해되는 등 여러 상황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1차 방정식을 뛰어넘는 고차방정식을 갖고 계시다"면서 "그렇기에 우리는 더 기도로 준비하며 영적으로 개여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통일한국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선 청년을 변화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부탁했

류정호 대표회장은 "혹자는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두고 교회가 마치 소수자의 인권을 부정하는 것처럼 오향한다"면서 "우리는 동성 간 성행위자들의 천부인권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인권으로 위장한 부도덕한 성행위, 하나님의 창조섭리와 자연 질서를 파괴하려는 잘못된 성행위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신적·보건적 위기상황에 놓인 동성애자에게 진정한 인권은 잘못된 성행위를 중단하고 그 세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교총 총무인 최우식(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무) 목사도 "입법부와 행정부는 법을 통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종교자유까지 억압하려 한다"면서 "이번에 전달한 110만장의 서명지는 더 이상 반기독교적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가 바뀌려면 청년이 먼저 변해야 한다"면서 "한국사회가 중요한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청년을 깨우치려면 우리와 같은 아비 세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 경제 선교 교육 분야의 지도자를 세우고 북한구원을 위해 매주 한 끼 금식기도를 하고 매주 1회 북한구원을 위한 기도 모임에 참석하며 통일 한국을 위한 백의 일조를 드리는 데 힘쓰자"고 도전했다.

금식성회를 준비한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도 "오늘은 주체사상교를 이끄는 김정은이 태어난 날로 복녜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영이 가장 활개를 치는 날"이라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체사상이라는 거짓 영이 파쇄되고 김일성 김정일 동상과 정치범수용소가 없어지도록 간절히 부르짖자"고 도전했다.

이어 "통일의 그날 북한 땅에는 복음전파에 헌신된 성도가 먼저 들어가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포교꾼이나 부동산 업자, 료살롱 업자가 선점하도록 내버려 뒀던 안된다"면서 "최전방에서 기습 전투에 대비하는 '5분 대기조'처럼 말씀의 검과 전문성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북쪽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북한에 억류된 한국 선교사 6명과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중보기도 했다.



“우울증과 영적 치유” (13)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육, TPPM대표

7. 우울증의 치유가 늦춰진 이유

우울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까지 나에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만약 내가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영적 지식이 있었다면, 더욱 빨리 치유 받을 수 있었다고 믿는다. 뒤를 돌아보면, 내 치유가 지연되고 1년 이상 지속된 다섯 가지 이유가 있다.

1) 고통

상처와 고통은 그 즉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에게서도 듣지 못했다. 감정적, 정신적, 영적으로 느끼는 강한 통증으로 인한 흐려진 마음 때문에 생긴 내 상처를 계속 쌓아두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상처와 고통을 관리하고 돌보라고 말해주었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고 나서, 내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외롭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이 우울증의 고통에서 방황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여동생의 죽음으로 인해 생긴 슬픔과 상실을 처리해 나갈 수 있었다. 내 동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서 내 여동생의 잔영을 놓아줄 수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 여전히 풀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우울증에서의 회복이 늦어진 이유였다. 내가 결혼해서 집을 떠났을 때야 분노와 원한스러운 마음을 떨쳐 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려 할 때 아버지의 죽음이 내 치유를 늦어지게 했다. 그의 자살로 난 다시 분노가 일어났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2) 파괴적 음성

나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였고 사탄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누군가가 미리 경고했다면, 내 치유는 좀 더 빨라졌을 것이다. 나는 평생을 교회에 다녔지만 어떻게 사탄이 뒤뜰린 생각을 내 마음에 심으며, 또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 나에게 우울증과 고통과 영적인 압박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이 없었다. 또한 성경이 상처 받은 마음과 혼동된 정신을 극복하게 도와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3) 영적 억압

나는 영적 억압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사람들이 고통의 영에 의해서 악몽에 시달리고 육체적인 공격으로 밤낮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다. 내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사탄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악령의 공격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나는 싸우는 법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싸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커가면서,

의 태도와 삶의 양식을 바꿨다.

나는 오랫동안 걱정과 근심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또 내 생각의 초점이 내 자신의 안정된 삶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에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불순종의 삶은 감정적, 정신적, 재정적 혼란만을 불러왔다.

사람들과 물질을 주님 위에 둘 때, 그것들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통해 걱정과 공포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왜냐하면

므로, 마귀에게 근심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흐트러질 기회를 주지 않는다.

나의 필요를 다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을 의지하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 삶에서 희망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소망을 심어놓으셨을 때, 나는 절망과 우울증에서 놓여나게 되었다.

걱정과 두려움을 어찌 취급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됐는데, 그 방법은 바로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신앙적 가치관 갖고 있는 것은 마귀의 공격 허용하는 것 주님보다 사람/물질을 더 높이면 근심과 두려움의 노예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영적 자유를 찾을 수 있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눅10:19)라고 말씀하셨다.

4) 죄의 힘

나는 내 삶 가운데 행하는 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비신앙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한, 마귀의 공격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교육, 문화, 사회적 가치관, 그리고 가정에서의 학대가 하나님의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나의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 자신의 지혜와 지식에 기대지 않기 위해서 내 삶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에 더 의존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사탄의 하는 일을 때려 부수셨다. 예수님은 악한 영들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평안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10:10)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주님보다 사람과 물질을 더 높이 하면, 나는 근심과 두려움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주 예수를 사귀거나 물질보다 더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심과 두려움을 상고하는 것보다 더 묵상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심어줄 필요가 있

왜냐하면 걱정과 두려움의 영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기 때문이다. 우울함에 다시 빠지고, 두려움으로 지쳐버리고, 걱정과 불안에서 헤어지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음을 선포하기 시작함으로써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5) 삶의 목적 결여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과 또 그분을 믿어왔다. 그러나 아주 오랜 동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사

랑의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계획을 세우면서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내 삶에서 무엇인가 빠진 듯한 느낌을 받았고 찾기를 시작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실제로,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내 우울증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때부터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성경공부도 시작하게 되었다. 우울증을 겪으며 이러한 교훈을 얻는 과정은 정말 괴로운 일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난 우울증을 이겨냈고 이전보다 더 믿음이 성장하여 삶에 열정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3:31-32).

8. 음성

내가 우울증으로 더는 고생하지 않고 있었지만 나를 짓누르려 하는 또 다른 영을 대처하는 법을 알기 전에는 우울증에 다시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에 빠지면, 마귀는 영락없이 찾아와 내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과 절망하도록 속임수를 써서 빠뜨리려 하였다.

yonghui.mcdonald@gmail.com



드라마 신약 (11)



김덕수 목사
(생터사역원 LA지부장/하늘소망교회 담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의 1차 선교여행 현장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회심시키고 갈라디아 지방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위험에 처하면서도 끝까지 갈라디아교회를 개척하는 바울을 여정이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2차 선교여행(행15:36-18:22)을 함께 떠나 보겠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행 15:36-39)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온 후, 수리아 안디옥교회에서 발생했던 율법지킴에 대한 문제도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하여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의 동행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도 2차 선교여행에 합류시키기를 원했고,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특별한 이유 없이 팀에서 이탈한 마가 요한과 함께 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는 마가 요한의 문제만 거론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2:11-13에는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교회에 왔을 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와 베드로의 일행들이 수리아 안디옥교회 교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교인은 이방사람이었겠지요.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는 것이 야고보 사도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급하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날 때

그 교회의 담임목회자인 바나바도 함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울의 눈에 비친 베드로와 바나바의 모습은 ‘외식’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은 외식한 그들을 보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바나바에게 2차 선교여행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받은 바나바가 마가 요한도 동참시키자고 했고, 끝까지 그 의견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각각 선교팀을 꾸리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갈라디아

기아 지방을 거쳐서 갈라디아 지방에 속한 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심방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었고,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갈라디아교회 교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정문을 전달받은 교회는 기쁨으로 더욱 전도에 힘썼습니다.

갈라디아를 떠나서 가고자 했던 도시는 아시아(에베소)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막으셨고, 북쪽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드로아(트로이)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을 본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나의 항구도시인 네압볼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파되는 순간입니다.

빌립보에서는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때 빌립보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을 전하던 어느 날 점치는 귀신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박해는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도 데살로니가교회가 세워집니다. ‘야손의 집 습격사건’으로 인해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남쪽의 베뢰아로 이동을 합니다.

베뢰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베뢰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베뢰아로 보내어 군중들을 총동원하여 바울 일행을 박해하게 됩니다. 박해로 인해 바울은 아덴(아테네)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베뢰아가 속해있는 마게도나 지방에 남겨두고 바울 혼자 아덴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엄청난 박해를 받을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아덴으로 온 바울은 운 성이 우상과 철학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아레오바고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한 후 고린도로 이동을 합니다. 고린도에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의 내용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합니다. 또한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잘 견디라고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를 쓰게 되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후서의 내용은 복음적인 종말론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를 쓰는 동안에 갈라디아교회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울 사도는 가짜 사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짜 사도가 되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간 갈라디아교회 교인들의 영혼을 생략하며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의 시작은 바울 사도권의 정당성부터 선포하며 시작하며, 그 필체와 표현은 상당히 거칩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에 관하여 확실하게 정리를 해 줍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선교여행을 마치며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3권의 서신서를 쓴 후에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를 떠납니다. 돌아오는 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겨두고 바울 혼자 예루살렘교회를 들렀다가 수리아 안디옥교회로 복귀합니다.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의 목표지는 에베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미리 파송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를 공략하려는 바울의 전략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기간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아볼로라는 훌륭한 인재도 발굴하여 고린도교회로 파송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울과 함께 3차 선교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dsukim@gmail.com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빌립보교회, 데살로니가교회, 고린도교회 개척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전후서, 갈라디아서 저술

교회를 심방하며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선교여행(행15:40-18:22)

2차 선교여행의 경로는 수리아 안디옥-다소-디베-루스드라-이고니온-비시디아 안디옥-드로아-네압볼리-빌립보-데살로니가-베뢰아-아덴-고린도-겔그리아-에베소-로도-가이사랴-예루살렘-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경로로 선교여행을 하는 동안 빌립보교회, 데살로니가교회, 고린도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고린도교회에서 데살로니가전후서와 갈라디아서 쓰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교회에서 출발하는 바울과 실라의 여정에 함께 동행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길리

들린 여종을 고친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찬송을 하는 중에 큰 지진이 나고 감옥터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이 다 열릴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혔던 모든 죄수들의 묶었던 차꼬가 다 벗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 자결하려는 간수장에게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로 이동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돈을 주고 용역강패를 동원하여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는 생업이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어 1년 6개월을 동역할 때 고린도교회가 세워집니다. 고린도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중에 마게도나에 남겨두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마게도나 지방(특히 데살로니가교회)의 교회 상황을 보고 합니다. 데살로니가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며 위로와 격려를 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후서, 갈라디아서 발생
데살로니가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시겠는가...(하)



주성철 목사
태평양법률협회

다섯 번째로 종교적 자유가 박탈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특히 미국에는 크리스천과 유대교 그리고 기타 종교를 거부하는 단체가 몇 있는데 그중에 FFRF, SPLC와 ACLU란 단체가 있다. 이들은 무신론자 단체이고 어떻게 해서든 크리스천들을 말살시키려는 단체다. FFRF는 Freedom From Religious Foundation의 줄인 말인데 이들은 전적으로 무신론 단체다. 지난 40-50년 동안 미국의 종교단체를 무너뜨리려고 무단히 애

를 한다고 잘못 생각할 정도로 악랄하게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2012년도에 칙필레를 돕고 있는 Family Research Council에 총기를 들고 들어와 총기 난사한 사람을 변호한 그룹이다. 범인이 "나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칙필레 샌드위치를 그 얼굴에 바르겠다"라고 시인한 사람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이외에 문제를 야기시킨 일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영향력이나 정치압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 크리스천 비즈니스들이 한들씩 자신의 믿음 표현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운영 방침까지 바꾸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엽 그 유명한 칙필레 단체가 더는 크리스천그룹에 후원금을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이 그룹이 바로 칙필레체인 식당이다.

이 회사의 경영진들은 그동안 SPLC, 즉 남부빈곤법센터에 후원금을 보내고 있었다.

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크리스천 학생들에게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갈 계획이다. 아이들의 성교육과정을 비롯한 교내에서 종교 활동 등 많은 제제가 있을 것이다. 학교 교사들 가운데 신앙인이 있지만 이들의 능력은 매우 미흡하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성경적 견해로 발표한다면 그 즉시 해고당하는 일들이 빈번하다.

물론 우리 협회가 있어서 그냥 보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크리스천 교사들이 이들 압력에 어쩔 바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 특히 학부모들이 하실 일 있는데, 가능하면 학부모회에 참여하시길 바란다. PTA, 즉 Parents Teacher Association인데, 이 학부모회는 한국의 학부모회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미국에서는 교사와 학교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정책을 세우는 일까지 관여할 수 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대량으로 PTA에 참여하신다면 여러분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반기독교 정책을 거의 매 기회 때마다 창출해내고 있다. SB360과 ACR99 법 발의안을 알고 있지 않은가? 주 정부에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교회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IRS는 물론이고 주 정부에서 교회들을 향한 정치적 압박을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는 교회마다 교회 헌법/정관 또는 내규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교단의 헌법을 재검토하시고 헌법안에 성경적 결론관이나 인간의 성에 대한 성경적 해석이 잘 되어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연락하시라.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샘플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카페, 바자회, 선교금 마련 판매, 그리고 주일 음식 판매 등등에 대하여도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만들어놓은 비영리단체 판매 규율을 참고하고 교회 CPA와 의논하시기 바란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이유든 판매는 금하고 있다.

필자는 미국에 72년부터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해



니카라과연합장로회 신년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1월 2일 오전 10시 니카라과 연합장로회 선교사내외, 목회자내외들이 함께 니카라과연합장로회 교단 강당에 모여 함께 신년예배를 드렸습다. Enrique Zamora 목사의 사 회로 Jorge Castillo 목사의 찬양 인도, Juan Carlos Davila 목사의 교독문, Damaso Perez 목사의 기도와 이재경 선교사의 성찬식 집례, 오영관 선교사의

설교와 김인선 선교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다. 니카라과 목회자 사모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선물을 드리고, 목회자들에게는 달력과 다이어리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함께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니카라과 장로교회들과 목회자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시해야 할 점들: 종교 자유 박탈 증가, 공립학교 더 심각할 듯 교회향한 정치적 핍박 시작, 내규 마련해 대비 한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엔 법 갖고 우리 신앙과 권익 지켜내야

를 쓰고 매년 소송을 걸고 있는 단체다. 그런데 매년 법정에서 패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만 있으면 계속 소송을 하고 소위 "아니면 말고"란 자세로 덤벼든다. 이들과 합세한 단체가 ACLU인데 이들도 역시 반 크리스천그룹이다. 그리고 최근에 부상한 단체가 있다.

물론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을 숨기도 이중인격자의 모습을 보여왔지만 최근 들어 이들이 수면위로 부상하는 일이 있다. 그 그룹이 바로 SPLC, 즉 Southern Poverty Law Center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남부빈곤법센터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매년 "증오그룹" 리스트를 발간하는데, 모든 크리스천 교회와 비영리단체들을 "혐오그룹"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정체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 혐오

주일에도 문을 닫고 사업을 안 하던 칙필레가 반기독교 단체인 남부빈곤법센터를 돕고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주일에 문을 열 시기도 얼마 안 남았다. 그동안 칙필레 체인점에 오만가지 위협과 협박을 받고서도 그들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서서히 세상과 타협하고 반기독교 단체와 타협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불매운동을 벌이기 전에 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이 고인이 되었지만, 설립자의 비전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여섯 번째로 공립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큰 피해가 올 것이다.

2020년도 캘리포니아 교육청의 정책을 살펴보면, 종교 자유에 대한 도전이 더 심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그나마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수시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PTA에 참여할 수 없다면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들어가서 교사와 좋은 유대관계를 맺고 또한 학교의 소식과 정보도 접하시길 바란다. 영어가 안 돼도 상관없다.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르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의 학습을 돕는 기구를 마련하고 일이다. 그러나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없었지만 시 의회에도 종종 참석해서 이들이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지 아실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곳에서 이들의 정책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교회의 대립이다.

왔고, 특히 1978년 대학을 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난 후 주님의 부르심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36여 년 동안 사역을 해왔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특히 노헤미아의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문득문득 떠오른다.

노헤미아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특별히 필자의 마음에 도전을 주는 것은 "한 손에는 창, 다른 한 손에는 무기"란 대목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살면서 한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법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권익을 지켜내야 한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주님의 섭리를 믿고 힘 있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6번째 목회자 핸드북 세미나



6번째 목회자 핸드북 세미나에서 오영관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한편 목회 자료가 거의 없는 현실 가운데 목회하고 있는 니카라과 현지인 목회자들을 위해 오영관 목사께서 지난 2015년부터 목회자 핸드북을 펴내 세미나를 통해 그 효과적인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2020 목회자 핸드북 세미나를 2019년 12월 30일 오전 9시 마사야제일장로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10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력에 따른 주일예배 설교 자료, 성경 비유를 중심으로 한 저녁예배 설교 자료, 찬송가, 교독문 등이 수록된

2020 목회자 핸드북의 적절한 사용을 강의하였습니다. 특별히 2020 목회자 핸드북에는 주석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목회자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중요 단어를 관한 주석을 삽입하였습니다. 또 목회자들이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고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동흥 드림 missionica21@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 | | | | | |
|---------------------------------------------------------------------------------------------------------------------------------------------------------------------------------------------------------------------------------------------------------------------------------------------------------------|---------------------------------------------------------------------------------------------------------------------------------------------------------------------------------------------------------------------------------------------------------------------------------------|-------------------------------------------------------------------------------------------------------------------------------------------------------------------------------------------------------------------------------------------------------------------------------------------------------------------------|---------------------------------------------------------------------------------------------------------------------------------------------------------------------------------------------------------------------------------------------------------------------------------------------------------------------|------------------------------------------------------------------------------------------------------------------------------------------------------------------------------------------------------------------------------------------------------------------------------------------------|------------------------------------------------------------------------------------------------------------------------------------------------------------------------------------------------------------------------------------------------------------------|
| <p>남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org</p> | <p>남성제일교회 담임목사: 차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p> <p>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 <p>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찬양예배: 오전 6:30 토요일학교: 오전 9:00</p> <p>Tel: (562)691-0691, Fax: (562)691-0688, www.nachi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p> | <p>남가주주둔교회 담임목사: 김현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p> <p>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 <p>남가주사랑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후 1:20 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 <p>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
| <p>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 <p>머무는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모임: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213)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수일예배 장소) Office: 106 S.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수요모임 장소)</p> | <p>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 <p>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이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병자부양회: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 오후 7:30</p> <p>Tel: (213)381-2202, www.mjcl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 <p>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p> <p>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 90717</p> |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
| <p>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p> <p>Tel: (714)646-9259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 <p>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 <p>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은송 목사 엘피사로 엘피스는 (ELPIS)의 뜻은 소망 (Hope)입니다.</p> <p>http://www.elpis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사제기도원: 365일 24시간 요원</p> <p>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 <p>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한인)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경대명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p> |
|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www.gjc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 <p>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회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310)530-4040(CH), www.cornestonetv.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 <p>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분당) E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예배: 오후 8:00 (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분당)</p> <p>Tel: 310-370-5500, www.torrancecg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 <p>핼(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이훈우 주일예배: 10시 50분 17월 8월 "이름날 모세와 종가의 장막에 올라본 족 레의 집을 위하여 난 아론의 지팡이 종이 들고 손이 붉어 피에서 살구 필매가 열렸다."</p> <p>Tel: 213 924-3340, pmission1004@gmail.com 3944 Wilshire Blvd, LA, CA 90010</p> | <p>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

영어로 보는 성경 (49)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2 Corinthians 5: 15-17

15) And he died for all, that those who live should no longer live for themselves but for him who died for them and was raised again.
 16) So from now on we regard no one from a worldly point of view. Though we once regarded Christ in this way, we do so no longer.
 17)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NIV 2011>

WORD & IDIOM

* (so) that A (should) ~: A가 ~ 하도록, 이는(그래서) ~ 하려 함이다 * no longer ~: 더 이상 ~가 아니다 * not for A but for B: A를 위해서가 아니라 B를 위해서 * from now on: 이제부터 * regard ~: (어떤 감정이나 태도를 갖고) ~를 보다 * from a worldly point of view: 세상적인 관점에서 * though: (비록) ...이긴 하지만, 일지라도

GRAMMAR

15) And he died for all,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위해 죽었다.

| | | |
|-----------------------|--------------------------|------------------------------|
| <u>(so) that</u> | <u>those who live</u> | <u>should no longer live</u> |
| 그래서 or 이는 | 살아있는 자들 | 더 이상 살지 않게 하라 |
| <u>for themselves</u> | <u>but</u> | <u>for him</u> |
| 그들 자신을 위해 | 그러나 | 그들 위해 |
| <u>and</u> | <u>was raised again,</u> | |
| | 그리고 다시 율림을 받은 => |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위하여 죽으셨다, |

이제는 산자들이 더 이상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 이 문장에서 (that)이라는 그분(예수 그리스도)이 돌아가신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so that A should ~) 과 (not for A but)의 용법을 숙지하여 단어의 배열 순서를 우리말 어법에 맞도록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 (those who live) (for him who died for them)에서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바로 앞의 (those와 him)을 각각 가리킨다.

16) So from now on we regard no one from a worldly point of view,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 | |
|---------------------------------------|---------------------|
| <u>Though we once regarded Christ</u> | <u>in this way,</u> |
| 비록 우리가 전에 언젠가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 이런 방식으로 |

we do so no longer,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 => 비록 우리가 전에 언젠가는 이런 방식(세상의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

17)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그러므로 만약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창조가 온 것이다: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옛것은 갔다, 새것이 여기에 있다! => 그러므로 만약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창조가 도래한 것이다. (즉) 옛것은 지나갔고 새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 <we regard no one>은 <we don't regard anyone>과 같은 의미이지만 우리말과 달리 영어는 흔히 명사를 부정한다. <the new creation has come>과 <The old has gone>은 현재완료형 문장이다. <have(has)+PP>형태의 현재완료시제는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이나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STUDY & THOUGH

■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일차적 목적은 속죄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에 있다. 이 화해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유도하지만 오직 산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여기서 산자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에 동참한 자를 말한다. 사실 부활은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기에 분명히 산자이다. 산자의 특성은 영적인 변화이다. 이 새로운 영적 변화로 인하여 산자는 이전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합당한 새로운 방식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 God made us into new creations in Christ.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헛맹세를 경계함(약5:12)찬518장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는 신자의 정상적인 삶에 마음을 뒤야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지고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는 헛맹세를 경계하라고 합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쳐진 신자는 여전히 참된 삶을 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거짓맹세를 이길까요? 첫째, 교만하려는 정욕과 싸워야합니다. 헛맹세로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교만의 원인, 육의 부패성의 활동 때문입니다. 자기자랑의 욕

망이 경건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자기를 가리기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진실주의로 살려고 힘써야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것이 좋지, 거기에 부풀리거나 비굴하게 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셋째, 교만에서 오는 여러 죄를 경계해야합니다. 새해목표 역시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서 죄와 피흘리기까지 싸우는 일에 돕시다.

화 곤고한 날에 우리가 할 일(약5:13)찬190장

교회의 고난은 진리의 생활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신자의 길은 고난 속에서 진리를 따름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고난을 잘 다루어야합니다. 어떻게 다룰까요? 첫째, 기도해야합니다. 고난의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진실되게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실상을 알게 하시고 그와의 교제를 더 깊게 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합니다. 둘째, 기쁨이 생기기까지 기도해야합니다. 괴로

움은 하나님과의 교제단절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자유로움과 찬송이 생깁니다. 셋째,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고보의 기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고난을 다루심을 보는데서 생긴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고난당하는 성도 안에서 성령으로 기이한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으로 교회는 부흥합니다.

수 병든 자에 관한 교회사역(약5:14-16)찬484장

교회생활의 고난이 질병에서 많이 나옵니다. 영혼의 고통으로 고난 속에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다루합니까? 첫째, 교회에도 병든 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14). 일반은총의 범주를 벗어나서 생활할 자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먹이나 마시나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주어진 자연혜택을 감사히 받아야 합니다. 둘째, 장로를 통해 기도해야합니다(14). 질병으로 오래 고통 하는 신자는 장로

들을 통해 치유의 은총을 간구해야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치유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은 교회를 통해 일하심을 우리는 믿어야합니다. 셋째, 죄를 고백하며 치유를 기도해야합니다(16).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 죄를 처리해야합니다. 모든 병은 죄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함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목 의인의 간구(약5:16)찬479장

그때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의 효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이런 기도를 통해 보여져야만합니다. 왜 이 기도가 필요합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 기도를 통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야합니다. 둘째, 교회가 더욱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니다. 참된 기도가 이루어질 때 위로 오는 평안이 우리를 지배합니다(딤후2:1-2). 셋째,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신실한 말씀 사역과 신실한 기도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위로부터 임하는 치료가 따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은 기도하는 의인의 섬김을 통해 일어납니다. 새해는 이 부흥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금 간절한 기도의 효력(약5:17-18)찬482장

엘리아의 기도를 본으로 생각한 야고보는 그 효력을 자신이 경험하고 교회에게 구체적인 길을 보여줍니다. 첫째, 그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로 한 기도이니 그만큼 진실된 헌심으로 나아갔습니다. 묵소내면 기도가 진실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말씀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비를 주리라는 약속을 알고 그것

을 따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약속에 근거한 기도만이 간절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에 근거를 두면 진실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셋째, 인격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인격적 교제는 기도의 효력을 가져옵니다. 엘리아 같은 효력 있는 기도의 삶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토 가장 위대한 사역(약 5:19-20)찬258장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을 무엇이라 합니까? 첫째, 진리를 떠난 자 곧 이단자를 미혹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입니다(19). 진리를 잃게 되면 진리를 밝힘으로 거짓에 빠져 방황하는 자를 돌이키게 하는 일이 어떤 사역보다 더 위대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주된 사역이고 목사의 제일의 사역입니다. 둘째,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19). 진리를 알 때 실제적인 구원이 일어나고 영혼의 자유

함이 생깁니다. 진리인 복음을 잘 깨닫고 깨닫게 하는 일이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셋째, 많은 죄를 책임지는 사역입니다(20).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항상 죄는 유혹하기 때문에 심자기를 지고 세상의 죄를 책임져야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사역이고 복음전도의 사역이고 영혼의 사역입니다. 죄를 진리로 덮어버리는 위대한 사역에 헌신하는 새해를 만듭시다.



"사랑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운반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편안한 안전지대 넘어 불신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처치리더스.컴, 작가 에단 레노에게 듣는 기독교예술의 영역확장위한 제언 소개

최근에 친구와 함께 있다가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게 됐다. 나는(Ethan Renoe, 에단 레노는 강연자, 작가, 사진작가) 그에게 어떤 타입의 음악을 들느냐고 물었고 그는 내게 자신이 '기독교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다.

나는 그게 장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기독교인들은 모든 장르의 범위에 걸쳐서 음악을 만들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메탈 밴드의 상당수는 기독교인들이다. 하지만 나는 존 포어

오늘날 기독교 예술에 무슨 일이 있는가?

최근 나는 기독교 예술과 우리가 세상의 창조적인 시도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생각을 많이 했다.

한 크리스천 가수(Michael Gungor)는 그와 친구들은 첫 5초만 들으면 어떤 음악이 '기독교인인지' 실패하지 않고 맞출 수 있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 음악들이 더 가짜 같고 진부하기 때문이다.

보노(Bono)는 기독교 예술은 아이러니하게도 진실함이 결여돼 있는데, 성경의 찬송가 책인 시편에서는 진실함이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나는 기독교 미디어에게 자체가 독특한 틈새시장을 개척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들은 최고의 영화, 가장 독창적인 음악 또는 가장 독특한 책을 창조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만들어지는 데는 일정한 경계가 있는 경향이 있고, 이 경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준다.

다른 말로 사람들이 기독교 미디어를 지속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비 로비(오클라호

마에 있는 공예품을 파는 가게)에서 원본처럼 보이지만 대량생산된 키치한 예술품을 사거나 '빈티지'한 나무에 좋은 구질이 새겨진 것을 살 수 있지만 최소한 이것에는 욕이나 누드가 없을 것이다.

많은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안전함과 대피처가 정직, 진실성 그리고 위험보다 더 소중한 세계에 속하고 있다.

우리는 좋은 것보다는 안전해지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에서 하나님을 아슬란이라는 캐릭터로 표현한 것과 정확하게 반대다.

"아슬란은 사자예요. 아주 대단한 사자." "오오" 수잔은 말했다. "나는 그가 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는...안전한가요? 나는 사자와 만난다는 게 불안하게 느껴져요."

"안전?" 비버가 말했습니다. "누가 안전에 대해서 말했나요? 물론 그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합니다. 그가 그 왕이라고요. 내가 말했잖아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그는 안전하지 않지만 그는 선택하고 좋으신 분이요. 쓰나미의 아름다운 힘이나 파괴적이고 슬슬 기어오는 회오리바람처럼 하나님은 안전하

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하지만 그분은 좋으시고 아름답다 우시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기독교 예술은 안전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만 가지고는 복음을 기독교 바깥 세계에 전하기에는 불충분하다('Christian Art' May Be Safe, But Is It Good?).

미국 기독교는 어떤 것은 허용되고, 어떤 것은 의심스럽고, 어떤 것은 절대로 금지된 공간을 만들었다. 나는 '재즈 같은 하나님은'이라는 영화를 보았을 때 웃어버렸다. 이 영화는 더 통렬한 것이 돼야 했다.

답은 다른 모든 기독교 미디어처럼 창조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영화는 상당히 좋다. 기독교 영화로서는.

왜 기독교인들은 다방면에 걸쳐서 좋은 영화나 음악을 만들 수 없는가?

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일하

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하지만 그분은 좋으시고 아름답다 우시다.

왜 기독교인들은 다방면에 걸쳐서 좋은 영화나 음악을 만들 수 없는가?

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일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정직하게 증언해야 세상에서 분노와 외로움과 깨어짐 더 이상 숨기지 않아

기독교 영화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영화 전체에서 욕설을 조금 사용했지만 더 이상 나쁜 것은 없었다.

나는 영화관에서 걸어 나오면서 이 영화에 대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문했다. 내 대

해 발언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에 대한 반발이 그와 그가 자신의 작품을 창조하는 방식을 바꿔놓았다. 사람들은 그가 '기독교적인 것들로 랩을 하는 착한 크리스천 래퍼'라는 이미지를 원했지

만 그가 자신이 마주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진짜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에 맞서기 시작했다.

레크레가 크리스천 아티스트가 말할 수 있도록 허락된 경계에 대해 말할 때마다 피드백은 항상 긍정적이었다. 나는 꾸며내고 세세하고 예의바른 대화에 기독교인들이 싫증나 있고 우리는 이 세계와 우리의 영혼의 뒤떨린 부분을 다룰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즐겁고 편안한 세상에서 고통과 분노와 슬픔과 분쟁이 없이 사는 것인 척 해왔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들에 눈을 더 뜨게 될 때 우리의 예술과 목소리와 우리의 증언이 더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진 척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더 정직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세상에서 나의 분노와 외로움과 깨어짐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도 그렇게하기를 원한다.

기독교 예술에는 자유가 필요하다

올해 초 크리스천 래퍼(Lecrae)가 미국의 인종차별에

만 그가 자신이 마주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진짜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에 맞서기 시작했다.

레크레가 크리스천 아티스트가 말할 수 있도록 허락된 경계에 대해 말할 때마다 피드백은 항상 긍정적이었다. 나는 꾸며내고 세세하고 예의바른 대화에 기독교인들이 싫증나 있고 우리는 이 세계와 우리의 영혼의 뒤떨린 부분을 다룰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즐겁고 편안한 세상에서 고통과 분노와 슬픔과 분쟁이 없이 사는 것인 척 해왔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들에 눈을 더 뜨게 될 때 우리의 예술과 목소리와 우리의 증언이 더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진 척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더 정직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세상에서 나의 분노와 외로움과 깨어짐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도 그렇게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세상의 부서지고 상처받은 장소들을 찾아가 만지는 것일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증언하는데, 인위적이기보다는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우리의 예술은 우리의 편안한 커뮤니티 바깥에 있는 누군가에게 도달하는 것을 막는 거품을 관통해야 한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세상의 부서지고 상처받은 장소들을 찾아가 만지는 것일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증언하는데, 인위적이기보다는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우리의 예술은 우리의 편안한 커뮤니티 바깥에 있는 누군가에게 도달하는 것을 막는 거품을 관통해야 한다.

"제2의 청교도로 한인 사용..."

(9면에서 계속)

△영적/정치적 혼란 속에 있는 대한민국이 회개와 기도, 부흥을 통해 회복되어 세계선교를 위해 더욱 크게 쓰임 받고, 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며, 자유/복음 통일의 길이 열리도록 기도한다 등의 목적을 갖고 있다.

김춘근 교수는 "미국은 청교도 신앙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올해가 청교도 이후 400주년이다. 교회의 순수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거룩성을 부흥으로

이끌면서 청교도 신앙회복 대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에 대부흥이 오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이번 기도운동을 통해 세계가 변화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회장 한기홍 목사는 "청교도 미주이주 400주년 기념 연합기도회 시작하며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연합기도회 주제를 이사야 60:1를 말씀으로 정했다"며 "모든 미주에 세워진 한인교회들이 연합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기도회 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이라 말했다.

한 목사는 "오늘날 미국은 하나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있다. 다시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야 하는데, 제2의 청교도들로 한인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 소망은 오직 예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다. 청교도 신앙 본반야 교회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미국 회복시켜주실 것"이라 말했다.

연합기도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3월말까지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가 미주지역 한인교회들을 방문하게 된다. 방

문도시는 한인교회가 10개 이상 있는 지역에 2일 정도 머물며 기도의 불씨를 지키게 된다.

남가주의 기도회는 오는 5월 7일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리는 국가기도의날 기도회, 그리고 11월 1일 다민족 기도대회로 모이게 된다.

(박준호 기자)

'미국 속에 빛과 소금이..'

(9면에서 계속)

소금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다시 한번 청교도 정신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샘신 목사와 이지연 변호사 사회로 시작된 2부 축하행사는 모시&코리 축하특송, 한인대표들과 히스패닉, 방글라데시 및 소수민족 대표들이 화합과 축복의 시간을 가졌으며 주디추 연방하원의원이 격려사를 했다.

이어 신승훈 목사가 환영사를, 브래드 위테이커 공화당 후원의 원장이 축사했다. 이어 장태한 교수가 '한인이민역사' 주제로 특강했으며 한국의 명인들이 공

연했다.

장소를 밀레니엄빌트모아호텔로 옮겨 열린 3부 환영만찬은 샘신 목사와 윤우경 아나운서 사회로 시작됐으며 이상명 박사(준비위원장)가 개회선언을, 이병만 회장이 환영사, 바리톤 장상근 교수가 미국국가와 애국가

를 불렀다. 이어 장태한 교수가 '한인이민역사'에 대해 특강했다. 이날 행사는 한인명무전 팀의 공연후 마쳤다.

(박준호 기자)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